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6호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늘어난 수계장병, 전역後 관리 필요

조계종 군종교구 3기 성과 및 4기 과제

4기 新 교구장 혜자 스님

7월 12일 임명장 수여식

'군장병 밀착 포교' 성과

불자장병 전역 관리 과제

"대불련 · 사찰 연계 관리해야"



조계종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에 혜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를 통해 군법당을 지원하고 평화의 불 봉안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보를 보인 혜자 스님의 군종교구장 취임을 계기로 군포교의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2일 군종특별교구본사 주지로 혜자 스님을 임명했다. 혜자 스님은 임명 직후 "신심과 원력을 세워 남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前 교구장 정우 스님이 그동안 군장병을 위해 열심히 애써오셨는데, 원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자 스님이 밝혔듯 그동안 군종특별교구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포교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겨울철 군장병을 위한 핫팩 전달이 시작됐다. 2013년 44개 부대에 핫팩 22만개 전달을 시작으로 2014년 1차 48곳 부대 면장갑 33만 켤레, 2차 92개 부대에 핫팩 27만개가 전달됐다. 2015년에는 90개 부대에 27만개의 핫팩이 전해졌다. 2016년에는 서해 도서지역에 '자비의선물' 사업도 추진돼 백령도 및 연평도 장병들에게 4500개의 단주와 핫팩, 마음수행 관련 책을 담은 위문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밖에 철책선 경계부대 장병들의 심성 순화를 위한 '사랑의 독서카페' 제도도 도입돼 2015년과 2016년 해병대를 비롯한 11개 부대에 독서카페가 탄생했다. 또 군장병 자장면 공양이 진행돼 3기 임기 동안 24개 부대에서 2만5000여 명이 자장면을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눴다. 또 군장병 합장주 걸어주기 운동을 통해 34만 2000개의 합장주도 지원됐다. 군장병들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법당 신축 및 보수도 추진돼 신축 21곳, 보수 72곳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3월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전통사찰 양식의 법당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정체 상태였던 수계장병은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명 수준이었던 수계장병은 2012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완공으로 11만4500명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3기 시작 시점인 2013년 10만5000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후 군장병 포교로 2014년 11만6000명, 2015년 11만7000명, 2016년 12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군포교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늘어난 군장병 만큼 이들이 부대와 전역 후 사회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종교구는 이 같은 필요성에 2015년 11월 각 교구본사와 군법당 자매결연을 추진해 현재 군단급 6곳과 사단급 5곳, 교육부대 13곳이 24개 교구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다. 하지만 사찰과 일선 부대의 연계는 군법당 불사 및 위문품 지원의 수준에 불과하다.

군종교구 실무 관계자는 "개인정보 종교 비공개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입대 전 파라미타, 대불련 등에서 불자 입대자 정보를 교구에 넘겨주고, 교구는 이들 정보를 부대법당과 이후 사찰에 넘겨주는 등 연속적인 포교, 관리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자 스님은 "현재 휴전선 155마일 33개 법당에 평화의불 봉안 원력을 세웠다. 군종특별교구를 맡아 한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군이 발전하고 군 포교가 진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4대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순호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수계 후 총무원 문화부장, 도선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안사 주지인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10년간 군법당에 초코파이 415만개 전달,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1억원, 백령도 흑룡사 차량 후원 등 군포교에도 앞장섰다. 임기는 7월 25일부터 4년으로이 · 취임식은 7월 27일 오후 6시 30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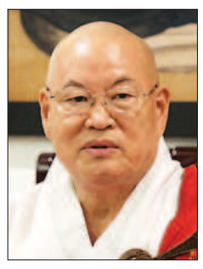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서 망중한을… 수종사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마시는 것이다. 수종사 앞마당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내 다원 '삼정헌'에서 시원하게 한강을 조망하고 있노라면 속진 번뇌가 씻어진다. 바람 사이 풍경소리는 정겹기만 하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고원영 작가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7월 13일 59표로 당선… "재정 정상화 앞장"



한국불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월봉)가 7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 결과 유효표 139표 중 총 5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수락 연설에서 "태고종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종단 사적 선택에 감사하는 한편 가슴 끝까지 저려오는 무거움과 의지를 동시에 느낀다"며 "당선자 신분으로 당장 내일부터 종단 재정악화 해결을 위해 대출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편백운 스님은 선거에서 △종단재정 정상화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천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간담회에서 스님은 먼저 종단 화합을 위해 먼저 대사면을 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화합의 길로 종도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정 예하와 종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문제부터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종단 재정 정상화에 대해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역대 집행부는 과도한 부채로 종단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집행부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업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를 어떻게 푸는지가 지도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인선에 탕평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각 시도 교구를 정비하고 행정능력이 완비된 곳부터 중앙종무를 이양해 임기 내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1950년 태어난 편백운 스님은 1963년 예산 수덕사에서 수계했다. 1973년 춘천 석왕사 주지에 취임한 이후 강원지역 포교를 활성화시켰다. 제13대 강원교구 종무원장을 지냈으며, 총무원 사회부장 · 교무부장, 교육부원장을 역임했다. 편백운 스님의 임기는 9월 23일부터 4년간이다. 김주일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연못에 연꽃없는 시대

① 대통령이 법정 스님을 초대한 이유

어느 해 7월 중순쯤이었다. 갑자기 법정 스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비원은 내가 일하는 샘터사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단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비원 앞 사무실로 달려갔다. 스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대뜸 비원을 함께 가자고 하셨다. 마침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우산을 챙겨들고 나섰다. 비원은 입장객이 모아지면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정해진 코스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스님과 나는 오전 11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입장했다. 나는 해설하는 인솔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신 정해주는 시간까지 나오겠다며 부탁했다. 인솔자는 스님을 보더니 허락했다. 스님과 나는 입장객들과 달리 부용지로 가는 길을 걸었다.

"독립기념관 백련지에 연꽃이 없다고 해요.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비원 부용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비가 멎은 듯해서 우산을 접었다. 부용지 가에는 부용정이라는 단아한 정자도 있었다. 아마도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부용지의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지은 정자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역시나 부용지에도 연꽃은 없었다. 여기도 관리자가 연꽃을 뽑아내 버렸음이 분명했다. 스님은 언짢으신지 표정이 어두웠다. 비원을 나와 스님과 나는 말없이 헤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스님께서는 모 일간지에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하셨다. 칼럼 뒷부분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芙蓉)에서 따 온 부용정(芙蓉亭)과 부용지(芙蓉池)가 있지만 역시 연꽃은 볼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조선왕조 때 심어서 가꾸어 온 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뽑혀 나간 이 연꽃의 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꽃에게 물어보라. 꽃이 어떤 종교에 소속된 예속물인가. 불교 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칼럼이 나간 뒤 스님께서 또 서울에 올라오시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보내 '연못에 다시 연꽃을 심도록 조치했다'고 전하면서 스님을 청와대로 초청하려 했지만 사양했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한 셈이었다. 권력자를 멀리 하고 힘없는 자를 가깝게 하는 이가 수행자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는 사실이지만 스님은 심지어 조계종 총무원도 피해 다니셨다. 한 번은 부근에 모시고 갈 일이 있었는데 총무원 옆을 지나치시지 않고 멀리 돌아가셨던 것이다.



수불 스님 “자승 스님이 출마 만류” VS 조계종 “수불 스님 먼저 도움 요청”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후보자로 예상되는 수불 스님이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선거개입 정황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수불 스님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7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만남서 나눈 대화 일부를 언급했다. 수불 스님은 “자승 스님이 나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를 추대해 치르고, 다음 선거에 나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상당히 불쾌했다. 총무원장이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반드시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원장이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모두가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을 종도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불 스님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하는 종단 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불 스님 주장에 대해 조계종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수불 스님이 먼저 원장스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원장스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초 기자회견은 〈법보신문〉이 이날 보도한 ‘총무원장 유력후보 A스님 금품살포 의혹’ 기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마련됐다.

수불 스님은 기자회견서 “내가 A스님이다. 하지만 승가의 전통처럼 이어져온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몇몇 교구에서 공양금을 문제 삼아 기득권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며 “소납은 지난 20년 이상 안거철마다 대중공양과 산중공양을 해왔다. 총무원장 선거를 기회로 문제 삼는 건 향후 후보자격을 원천 봉쇄하려는 종단 기득권층 작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중공양비 제공 보도 해명 기자회견

수불 스님 “20년 전부터 해온 관행”

스님은 이어 “자승 스님이 선거 중립만 지켜준다면 좋겠다. 뜻있는 사부대중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종단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단 한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총무원장 선거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법 제38조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재산상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그럼 군포교기금도 매달 내고 있는데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스님 의지와 다르게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의혹을 풀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석가탄신일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내년부터 공휴일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변경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글화 추세와 더불어 ‘석가’라는 단어가 고대인도 특정 씨족을 지칭하는 ‘샤카족’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75년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면서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장 유력 후보 공양금 안받겠다”

교구본사주지협, 7월 13일 회의서 결의문 채택

후보들의 공양금 돌려주기로
부당한 선거운동 행위 배척
“10월 원장 선거를 청정하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13일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오는 10월 열릴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호성)는 7월 1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개최한 제51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는 10월에 열릴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종단 발전과 화합의 반석이 돼야 할 소중한 기회가 부조리한 폐단으로 얼룩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스님들은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배척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공양금과 선물에 대해 거절할 것 △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선거문화 조성 앞장 등을 다짐했다.

이어 “이는 공명선거를 이루는 종법상의 근거이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상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 등 집행부 역시 교구본사 주지들의 의지에 적극 협조해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공양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은 “뒷거래가 있는 선거는 바른 인재 등용에 문제가 된다. 총무원장 당선인은 뒷거래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불교발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선거 공양금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혹시 이 가운데 대중 공양금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오늘 이 부분도 결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공양금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돌려 줄 것을 약속했다.

회장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이번에는 주지 스님들의 결의로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부조리한 폐단을 척결하고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51차 회의에는 18명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가 이어졌다. 종무보고는 ‘순천 선암사 등기말소 소송 경과 보고’ ‘제54기(2018년 봄 수계) 사미·사미나 수계 교육 일정 조정’ ‘출가지도법사 활성화를 위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개정 추진’ 등이 보고됐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신심 복원 과제… 공동체·탈권위·공공성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시민단체 초청좌담회

신심 냉각돼도 절은 유지
악화되기 전 해결책 내야
모범적 공동체 이끌어내
본보기 되도록 활용할 때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시민단체 초청좌담회 참가자들이 각자 견해를 밝히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심 복원’이 떠올랐다. 여기에는 불교 조직·단체의 공동체성과 탈권위,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7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시민단체 초청 좌담회 ‘백년대계에 말하다’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향민 인드라망연구소장·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5분간 발제 후 공동토론을 통해 잃어버린 불자들의 신심을 되찾는 것이 한국불교 미래를 이어갈 열쇠라고 뜻을 모았다. 특히 공공성을 갖춘 기초공동체 복원과 탈권위적인 모습 등이 불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유정길 위원장은 “현재 불교는 개인의 내적 신심이 냉각되고 있음에도 사찰이 유지된다. 이는 사찰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위해 불자들의 신심을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위원장은 “기초공동체 복원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매개로 여러 사람이 공공성과 평화를 갖춘다면 대중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젊은 세대에게 기성의 질서를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종교성 복원은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강요 아닌 현대적 권위를 갖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향민 소장은 근대성에 기초한 대안 마련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이해관계로 인해 삶이 재조직돼왔다. 하지만 인간은 공동의 목표나 꿈을 갖고 함께할 때 현실의 차이를 감싸면서 나아갈 수 있다”며 “방안 마련은 근대성에 기초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발전’이라는 표현이 ‘순환’으로 변화하듯 현상을 평가하는 잣대에 맞춰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원 위원장도 보여주기식 대안 마련보다 성공적인 공동체 양성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스스로 행할 생각이 없는 대안은 마련하지 않는 게 좋다. 교단이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포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성권 회장은 “UN미래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계속 성장하고 불교는 차츰 시들며 개신교는 뒤처진다고 한다. 이 같은 예측은 이슬람이 개인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라며 “불교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산하단체, 시민단체 등의 정체성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을 공무원 조직처럼 볼 뿐 종교조직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심이 복원되지 않은 채 복지단체나 사회단체로 전락한다면 의미가 없다. 껍데기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봉행

우각당 도일대선사 열반 영면 49재 천도법회

근세에 선지식이신 위대한 스승 우각당 도일대선사께서 불기 2561년 윤 5월 14일 9시경 입적하셨습니다. 경허선사의 선맥을 이은 포산선사를 은사로 해인사 백련암에서 1942년도 득도하여 법납 75세 일기로 타계하시어 문중에서 49재 천도법회를 봉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각당 도일선사 문도회 일동 정례 합장

증 명 : 영공도선 대선사

◆ 수법상좌

문도고문 : 정암큰스님, 현불큰스님, 지산큰스님

문도회장 : 석능인

문도부회장 : 석성불, 석도안, 석진각, 석법장

문도회원 : 범아, 효천, 법장, 원각, 지선, 혜안, 동산, 석문, 덕암, 상호, 무아, 법성, 혜암, 지우, 심공, 혜월, 해안, 돈오, 만용, 법진, 무변, 현오, 요산, 현각, 보각, 혜문, 성담, 도암, 영각, 청공, 청운, 법화, 법륜, 연제, 일경, 홍운

◆ 수법손상좌

대웅, 무척, 보관, 무정, 도법, 혜현, 길상, 보리, 법연, 광명, 혜각, 광명, 혜인, 지관, 우성, 동담, 금조

초재	7월 15일 (음 5월 22일)	함안 실상사 대법당
이재	7월 22일 (음 5월 29일)	고성 실상사 대법당
삼재	7월 29일 (음 6월 7일)	고성 무척사 대법당
사재	8월 5일 (음 6월 14일)	고성 무척사 대법당
오재	8월 12일 (음 6월 21일)	안강 금강사 대법당
육재	8월 19일 (음 6월 28일)	울산 현불사 대법당
49재	8월 26일 (음 7월 5일)	칠곡 총본산 각황사 대법당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총본산 각황사에서 막재와 함께 우각당 도일선사 부도기념비 제막식 법회를 봉행합니다.

●문의처 : 010-8729-9345

〈부당인사 채용 · 폭언 욕설 등〉

독단 운영에 금강대 총장 퇴진요구 확산

지난 5월부터 논란… "천태종단 개입 불가피"

부당인사 청탁 의혹 불거져
학교 측 "절차 적법" 해명

직원노조 "총장 퇴진" 촉구
천태종 말사에 호소문 보내
총장 해명 없이 '묵묵부답'



금강대 종합강의동에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다수 걸려 있다. 이외에도 캠퍼스 곳곳에 이 같은 현수막이 게시됐다.

천태종립 금강대가 현직 총장의 독단적 운영과 직원 인격모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교내 곳곳에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이와 관련된 대자보가 게시됐지만, 관할 재단인 천태종은 문제 해결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지부(이하 교직원노조)는 지난 5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말사에 '부당인사 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독단적 · 폐쇄적 대학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 300여 통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호소문에 따르면 교직원노조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과제 이행을 위해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서 부당인사 청탁이 발생했다. 채용된 직원은 조건이 월등한 타 경쟁자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지만 총장이 일부 평가자를 회유해 점수를 고쳐 올려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노조는 또 "잦은 음주운전, 전체회의 등 공식 석상서 직원들에 대한 총장의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도 자행되고 있다"며 종단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교직원노조가 주장한 부당인사 청탁 의혹은 지난 3월 진행된 '취업지원관'과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연구원' 채용과정서 불거졌다. 관련 자격증과 업무 경험을 갖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총장의 압력에 의해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는 게 교직원노조 주장이다. 교직원노조 측은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면접 평가서 호평을 받았으나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 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 대학발전자문위원회 교수가 추천한 제자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교 측은 면접서 지원자 점수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금강대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특성상 직원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이 2~3가지 일을 겸해야 한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뒤)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인물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총장은 인사위원회 평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청권자다. 대학 관례가 그렇다.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취업지원관과 CTL연구원이라는 공식 채용분야와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채용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위원은 "(회유나 강요가) 없지는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본지 취재과정서 총장 지시에 따라 A인사위원이 B인사위원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직원성과급제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직원평가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돼 '총장의 측근 인사 챙기기' 의혹은 더해졌다. 시행 세칙에는 5년 후 평가자료를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직원노조는 7월 7일 대자보를 통해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처리됐다. 총장은 측근들만 챙겨온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한 뒤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은 비밀유지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다.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자로서 총장의 개인적 품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본지가 확보한 직원 전체회의 녹취파일 확인 결과 총장은 "X판친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때려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뿌리부터 갉아먹는 X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많은 욕설을 듣고 버텨왔다. 총장 취임 후 10명이 넘는 직원이 그만뒀다.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향한 게 대부분이고, 이젠 이골이 날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취재과정서 총장의 잦은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총장의 음주운전에 수차례 동승했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대리를 부르시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음주 후 학교인근 관사에 주차하며 낸 사고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증언했다.

이에 본지는 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 비서실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비서실 측은 "총장님이 구조개혁평가 준비로 바쁘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종단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직원노조는 호소문 배포를 비롯해 수차례 대자보를 게시하고, 총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교직원노조에 따르면 7월 10일 가까스로 총장 면담이 진행됐지만 이 자리서도 총장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천태종 종의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교직원노조와 학교 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기와 체험으로 연수원 활용도 높인다

한국문화연수원 '기와 체험시설' 추진 포럼

조계종이 설립한 연수 기관인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이 자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와 체험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문화연수원은 7월 13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연수원 기와 문화체험시설 건립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문화연수원이 기와 관련 체험시설을 건립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5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현 연수원 위치에서 고려~조선시대 국내 최대 규모 가마군을 발굴했다. 당시 가마터는 마곡사 중건과 연계됐다는 사실과 다양한 구조의 가마와 기와편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 역시 연수원과 가마 유구들을 어떻게 연계 ·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호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고조사부장은 '공주 운암리 기와가마의 의미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장은 "이제는 단순히 주변 문화유산과 현상만을 보여주는 시대는 지났다. 각각의 콘텐츠가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근 마곡사가 조선시대 대규모 목조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고, 기와를 체험하고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원 내 숙박시설과 마곡사 템플스테이 등 유기적인 공생 방안도 함께 고민할 만하다"며 "기와를 이용한 야외 조형물을 랜드마크로 구성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공동체 복원에 주목하라"

선지식도량, 7월 13일 대안공동체 세미나

불교적 대안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선지식도량(위원장 무위)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1세기 대안공동체의 실험과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한국불교 공동체의 실험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불교가 미래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복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토회를 비롯해 진관사, 삼천사, 마곡사 등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유형과 사례를 예로 들고 공동체 주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사찰이 지역 · 마을 · 도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귀농, 귀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마곡사 등과 같이 사찰의 유휴농지를 귀농자들을 위해 임대해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귀농, 귀촌자들은 젊고 도시에서 활동한 지식인인 경우가 많다. 사찰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역 신앙공동체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가 미래사회의 지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인간의 발전 방향에 조응해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가 '해외 공동체를 통해 본 공동체 성패의 조건'을, 수지행 실상사 기획실장이 '마을공동체와 절: 실상사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대 종단 여성 회원들은 7월 11일 천도교 중앙대교장에서 "어머니답게 살겠다"고 선포했다.

7대 종단 여성들 "어머니답게 살겠다"

7월 11일 선포식…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일환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

7대 종단 여성 회원들은 7월 11일 천도교 중앙대교장에서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350여 여성 회원들이 모여 어머니답게 살 것을 다짐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 직할교구신도회 · 반갑다연우야 · 서울교통공사법우회 등 소속 여성 회원들이 참석했다.

여성들은 "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등 다짐을 전했다.

이번 여성들의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는 운동본부 설립 이후 직능 · 직업별로 열린 첫 번째 행사라 의미가 깊었다. 운동본부는 향후 '의료인 답게' 등 각 계각층을 대상으로 직능별 선포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결 의 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석 달 여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종단을 넘어 불교계 내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중대사를 맞아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의 역할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근래 몇 년 동안 전국 교구본사는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협의회를 통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소통해 왔다. 종단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교구의 역할을 공유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 왔다. 지금도 각 교구에서는 지역 불교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분주하며 중장기적인 목적 불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교구본사는 앞으로 걸어야 할 걸음걸이에 무지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각 교구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첫 단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에 이르러,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상호 협력을 추구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울러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을 서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본사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한다.

둘째,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매관 · 매직 및 일체의 공양금과 선물에 대하여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셋째, 후보자의 비전과 종책, 그리고 종단 발전을 위한 원력이 교구 구성원에게 널리 바르게 전해지도록 종단의 위상에 걸맞은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 모두는 공명선거를 이루는 종법상의 근거이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선출문화의 상식이다. 종단 발전과 화합의 반석이 되어야 할 소중한 기회가 오히려 탈법선거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 등 집행부 역시 교구본사 주지들의 이러한 의지에 적극 협조하여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우리 교구본사 주지는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격려와 축하가 함께하는 선거가 되도록 진력한다. 아울러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염원하며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61년 7월 13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일동

일 주 문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기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033)339-6800



원융종 법인 이사장 선출

진호 원융종 총무원장 스님은 7월 5일 원융종 총본산 원융사서 열린 법인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인 이사장에 선출됐다.

"사경 원력으로 학업도 성취하길"

파라미타 12일 전국어린이청소년 사경공모전 시상



전국 어린이청소년들이 사경 실력을 뽐낸 파라미타 제20회 사경공모전 시상식이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심사결과 동대부속 영석고 1학년 박은수 학생이 학교부문 종정상을, 강일중 3학년 황지윤 학생이 사찰부문 종정상을 수여받았으며, 또 광동고 2학년 이규진 학생이 봉축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밖에 학교와 사찰부문에서 수상자 87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에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사경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의 사경실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수행정진으로 집중력도 기르고 학업도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미국 3개 대학과 MOU 체결



동국대는 "총장 보광 스님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3개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7월 7일 밝혔다.

보광 스님은 한미 대학 간 학술교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일환으로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 △뉴욕시립 존제이컬리지 △뉴욕시립 브룩클린컬리지 △커네티컷 소재 가톨릭종립 세크리드 헛 대학 등을 방문했다. 기존 교류를 진행하던 스토니브룩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성민 기자**

"성소수자 인권 알리기, 종교의 당연한 역할"

Interview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노위, 7월 15일 퀴어축제서
'불교부스' 설치… '종단 차원 최초'
부채 나누기·법고 타고 등 실시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 알려

7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불교부스'를 설치하고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을 널리 알렸다. 퀴어문화축제에 종단 차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웃종교에서는 개별 교회 또는 성당 등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렸다.

불교부스 설치를 앞장서 추진해 온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진작 했어야할 일"이라고 7월 12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서 밝혔다. 불교계는 그간 성소수자 초청 법회 봉행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에 앞장서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그들을 위한 축제에 동참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란 뜻이다.

"부처님은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물을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누구를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을 불자들이 어루만져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양 위원장은 이웃종교가 교리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개별 단체들이 적극 행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향린교회 등이 매우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따라 많은 이웃종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단 차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성소수자 재가불자들이 협력하며 의미를 더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과 성소수자 불자들은 이날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님' '불교는 성소수자와 함께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치 않았던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또한 법고타고 체험, '성소수자가 불교에 바란다' 포스트잇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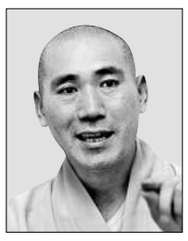
양 위원장은 이런 계기를 통해 성소수자들에게 항상 불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불교가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 자비정신에 따른 실천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사회노동위는 오는 가을, 서울 시내 사찰서(미정) 성소수자 초청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몽 스님이 새롭게 실천위원으로 합류하며, 앞으로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사회노동위'로서 역할을 확대해갈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교도소에 참회 수행 보급을"

〈자비도량참법〉 10만권 법보시 시작한 마가 스님



불교에서는 이 번뇌, 악업, 원한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권한다. 6세기 만들어진 이 자비도량참법을 현대화해 교도소를 비롯한 사회 각 곳에 법보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바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사진〉이 〈자비도량참법〉 10만 법보시를 발원한 것이다.

마가 스님은 최근 〈간추린 자비도량참법〉을 펴낸데 이어 법보시를 위해 7월 18일 교정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법보시를 위한 세부일정을 조율했다.

스님은 10만 법보시에 대해 "자장면을 보시하는 운천 스님 등과 교도소 포교를 위해 원을 세우던 중 단순히 법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소 수지독송하며 참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해 법보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생에 태어나 우리 공동체에 회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중이 스스로 참회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내 많은 재소자들이 자비도량참법을 익혀, 참회로 새로운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 현대화된 자비도량참법을 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한편 스님은 재가자를 위한 개인상담을 비롯해 동국대에서 마인드힐링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 33관음성지 순례한 일본인

나카무라 미에코, 2014년 시작해 4년 만에 회향



2014~2017년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순례한 일본인 나카무라 미에코 씨〈사진〉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7월 11일 회향증서를 수여했다.

미에코 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방문한 뒤 한일교류 사이트를 통해 33관음성지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관음성지를 순례하며 한국의 불교 및 전통문화를 접했다.

"4년간 관음성지 순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새삼 스스로 (긴 여정을)이뤄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회향증서까지 받게 되어 뜻 깊은 한해가 됐습니다. 33관음성지 인장첩을 새로 받아 한 번 더 33관음성지를 순례하고 싶습니다."

미에코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를 위해 총 160여회 한국을 방문했다. 그 후기를 여행정보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http://ameblo.jp/sunsu9r/entrylist-3.html)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미에코 씨의 순례 회향을 계기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찾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단장 수암 스님은 "이동수단이 편치 않았을 텐데도 외국인 홀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카무라 씨의 한국여행을 지지하며, 언제든 사찰서 머물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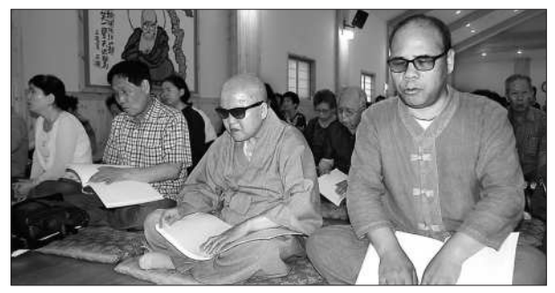
보문종 보문사, 쌀 6400kg 나눔



보문종 보문사(주지 인태)는 생전예수재를 회향하고 공덕을 나누고자 7월 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자비의 쌀 6400kg(80가마)을 전달했다. 보문사는 지난 5월 17일 생전예수재를 입재한 바 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생전예수재 공덕을 사회에 나누고자 신도들과 공양미를 복지시설에 전달하게 됐다. 의미 있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은해사, 점자의식집 출판기념법회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7월 9일 경내 템플스테이회관 육화원에서 법산 스님 금강경 4만독 기념법회 및 점자불교의식집 출판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명예교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 법산 스님과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 스님,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과 시각장애인불자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이런 뜻 깊은 법회를 처음으로 가지게 되어 불사의 보람을 한없이 느낀다"며 "앞으로도 은해사는 장애인 불자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산불교대학, 고성 하계수련회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고성분원 일대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현지사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사 말사인 고성분원은 고성 초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약사기도도량이다. 영산불교대학 하계수련생들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서 '2017 법형제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1박2일간 수련회를 마치고 스님과 거사들이 가지런히 앉아 기념촬영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거사들이 일어나야 불교가 산다"

[현장]
2017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전국 수련회

정근 · 심층토론 함께하며
500여 거사 마음자리 밝혀
환경보호 · 마음법 수행 등
참불자로서의 자세도 다져

"자성본래불, 자성본래불…."

낮고 진중한 거사들의 정근 소리가 눅눅한 밤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다. 500여 거사들은 촛불을 밝히고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마음자리를 밝혀 수행과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수련회 현장에서다.

한마음선원 법형제회(회장 박종수)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서 '2017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각 지원장 스님, 본원 법형제 법사 스님, 전국서 모인 법형제회 회원 등 500여 대중이 참가했다.

법형제회는 30여 년 전, 여성신도 중심 한국불교에서 대행선사가 거사들의 신행활동을 장려하면서 창립됐다. 한국불교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당시 거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은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 각지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물리적으론 떨어져 있었지만 '법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이름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특강(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 △심층토론 △마음 밝히기 촛불재 △토론 결과 발표 △한마음 체육행사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치마불교라고까지 불리던 여성신도 중심의 한국불교사에 유례없는 큰 획을 그은 법형제법회는 거사님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계에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대행 큰스님께서는 작은 나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나의 한 생각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한마음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 놓으며 가라고 가르쳐주셨다"고 강조했다.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의 특강.



우수발표팀에 포교상 · 실천상 · 성실상 등이 수여됐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 수련회가 스승의 가르침을 내면으로 더욱 관하는 정진력을 기르고, 백척간두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으로 전체가 한마음의 공마당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리가 되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법형제회장은 인사말서 "자신의 근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불기둥 에너지를 충만하게 느끼고, 이어갈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며 "나와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근본 주인공을 발현하고 생활 속에서 꽃 피울 것인지 서로 공유하며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특히 법형제회원들은 김수근 거사(대구지원)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맞다 틀리다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의 눈을 가져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심봉을 세우기를 발원한다"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길 서원했다.

각자 촛불을 들고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는 모습.


줄다리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회원들.

이어진 특강에서는 〈세계미래보고서 2055〉를 펴낸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가 최신 산업기술 동향 소개와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단가가 석탄 등보다 싸졌다. 태양광 패널 가격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이 같은 변화가 지속돼 태양광 패널 효율이 증가한다면 에너지를 개인이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형제회원들은 심층토론서 환경보호를 위한 불자들의 자세, 마음법 수행에 필요한 실천 노력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20개 팀으로 나눠 100분 동안 토론한 회원들은 다음날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1팀 발표자는 "나로부터 자연보호를 실천하자는 행동강령이 도출됐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나와 남을 둘로 보게 된다"며 "지구와 환경을 나와 둘 아니게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 생활습관이 바뀐다면 주위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본원이나 지원에 이러한 구심점이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법 수행'에 대해 논의한 3팀 발표자는 "자식에 대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등도 자기의식에서 나온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아파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한 생각 돌려 긍정적으로 밝게 뒤집어서 놓고 가야 한다"면서 "당장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근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의 습을 녹여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 발표자는 암을 극복한 개인 경험서 느낀 마음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땐 절망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암도 내 일부이자 친구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후 계속 마음자리를 관(觀)하면서 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도 모든 존재를 내 친구라는 생각으로 대해보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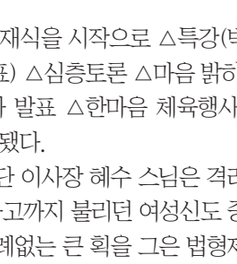
우수 발표팀에게는 각각 포교상과 실천상, 성실상 등이 수여됐으며, 본원 · 지원 법형제회원간 줄다리기도 진행됐다. 운동장에서 200여 거사들이 함께한 줄다리기는 장관을 연출했다.

양평=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독일에서 펼쳐진 불자들의 '한국사랑'

금강경독송회, 獨 드레스덴서 대장경 홍보

활자축제 참가, 강연 진행
금속활자 등 인쇄문화 소개
獨 "대장경은 놀라운 결과물"


드레스덴서 금강경독송회의 홍보영상을 보는 독일 인쇄협회 관계자들과 김정자 독일지부장(사진왼쪽 첫번째).

한반도 통일 선언이 이뤄진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국불자들의 불교문화 홍보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금강경독송회 독일지부(지부장 김정자)는 6월 18일 독일 드레스덴 활자축제에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대장경 및 한국 인쇄문화를 알렸다.

독일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은 독일 남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도시다. 금강경독송회는 드레스덴대 슈마흐 가블러 교수 초청으로 인쇄문화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활자축제'에 참가했다.

활제 축제는 18세기 설립된 오피친 하크 드루구린 인쇄사(Offizin Haag-Drugulin Dresden)가 주최한 대회로 세계 인쇄매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알려져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매일 오전 3시부터 금강경을 7독하고 드레스덴 대학과 고등학교, 박물관 등에서 대장경과 한국인쇄문화를 소개했다.

특히 드레스덴대 강연에서는 강사로 김정자 독일지부장이 나섰으며 강연에는 40여 명의 독일 인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 지부장은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서 영국 세필드 대학 존 옵션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독일인들에게 대장경과 금속활자를 소개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서 존 옵션 교수는 "구텐베르크는 한국 금속활자를 모델로 42행 성서를 찍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부장은 "많은 분들이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 중에도 8만장이 넘는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세종 시기 이뤄진 경자자와 갑인자 등 활자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금강경독송회 회원 김용희 씨는 "세종 16년 동안에 인쇄 속도가 5배 높아졌다는 것과 고령자를 위한 큰 활자 또한 당시에 제작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라며 "일본이 임진왜란 후 조선에서 훔쳐간 20만개 활자로 첫 인쇄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자 비치된 책자 70여 권을 모두 가져가기도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금강경독송회 측은 "금속활자 발명으로 세계문화에 혁신을 가져온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 출판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직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위인과 문화유산에 대한 책 8종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제작해 총 75만권을 인쇄, 전 세계 도서관과 대학 등에 배포하고 있다. 도 석굴암, 팔만대장경, 고려불화, 한글 등의 문화유산 속에 담긴 정신을 알리는 강연을 1만회 넘게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전국서 마음 수련회 연다

법문 퍼즐·천연염색 체험 등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수련회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7월과 8월 안양본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원에서 다양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먼저 안양본원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상한 나라의 위기'에서는 참가학생들이 스스로 오염된 마음과 상황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파악해보고 무한능력 에너지를 찾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본원 측은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내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명선원에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지원학생 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다양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이 각자의 이름표에 '착한, 친절한' 등을 새기고, '포켓몬 고'와 같이 지도스님과 선생님을 찾아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생활습관 돌아보기를 비롯해 생활과 마음 수행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참가 학생들에게 던진다.

광주지원이 진행하는 '마음으로 그린 푸른별' 프로그램은 참가어린이들이 환경보호의식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주 천연염색체험을 비롯해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산림자원연구소 숲체험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련회 기간 참가 학생들이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보호운동도 펼치게 된다.

청주지원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내 마음속 보물 주인공' 어린이회 수련회에서는 법문퍼즐을 활용한 보물찾기가 진행된다. 법문퍼즐을 아이들이 풀며 최종 목적지에서는 내 안의 보물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오후에는 숲속체험을 통해 나무와 함께 대화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지원명	분류	주제	기간	장소
안양본원	어린이회	'나에게로 한걸음 더'	7월 28일~30일	광명선원
	학생회	이상한 나라의 위기	7월 28일~30일	가평 밀키웨이펜션
광명선원	어린이회	산은 물을 안고 온갖 중생 다 안고서	8월 11일~13일 *어린이·학생회 연합	지리산
	학생회			
부산지원	어린이회	마음놀이터	7월 28일~30일	부산지원
	학생회	마음ON!	8월 11일~13일	전남 장흥
광주지원	어린이회	마음으로 그린 푸른별	7월 29일~30일	광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울산지원	어린이회	마음꽃 활짝	7월 29일~30일	울산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대구지원	어린이회	미정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진주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의 전화기	7월 29일~30일	진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공주지원	어린이회	미정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포항지원	어린이회	모두가 주인공	7월 22일~23일	포항 봉산체험마을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청주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속 보물 '주인공'	7월 22일~23일	광명선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통영지원	어린이회	어린이·청년회 연합캠프	7월 29일~30일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목포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의 전화기	7월 29일~30일	진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7월 13일 현재 일정 미정인 각 지원은 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馬다르리듯, 心魔도 다스려요"

한국마사회 불자들, 7월 10일 불자회 '마법회' 첫 조직

한국마사회 불자들이 마사회 설립 68년만에 불자회를 조직했다. 한국마사회 불자회 회원들은 7월 10일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지도법사 성행 스님을 비롯해 어영택 마사회 불자회 대표, 정병국 마사회 상임감사(前새누리당 불교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사회 불자들은 "마사회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결코 물러섬이 없는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것"이라고 발원했다.

이어진 법회에서는 마사회 불자회 명칭을 '마법회'로 칭하는 것과 법회 후 매달 정기법회를 여는 한편, 사찰예절을 비롯하여 기초교리부터 체계적으로 익히는 자리를 청계사에서 갖기로 했다. 또 대표로 어영택 대표가 선출됐다.

어영택 대표는 "1949년 설립 이후 불자들의 구심체가 없었다. 이번 마법회 출범을 계기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행 스님의 '개경게' 염송을 시작으로 '참회진언' 합송이 이어졌다. 지도 법사 성행 스님은 "108번뇌와 8만 가지 고뇌,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살피는 것"이라며 "화두를 갖고 하루 단 몇 분 만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꾸준히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서 '택견·사경' 배우며 무더위 탈출!

여름 템플스테이 특별 프로그램 마련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15일~8월 27일 매주 주말 열리는 여름 템플스테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통 감지에 금니 사경 및 택견 체험을 마련했다.

먼저 금니 사경 체험은 〈화엄경〉과 〈법화경〉 전체 사경 불사를 원만 회향한 지헌 박외수 선생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전통감지 위에 금니·은니로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써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사자소학〉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과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체본도 준비됐다.

또한 무형문화재 택견 국가 이수자와 함께 하는 택견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봉은사는 "무더위로 지친 참가자들의 심신을 강화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시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밖에 시원한 녹차·발효차·꽃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02)512-4826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7월 11일 지역 동행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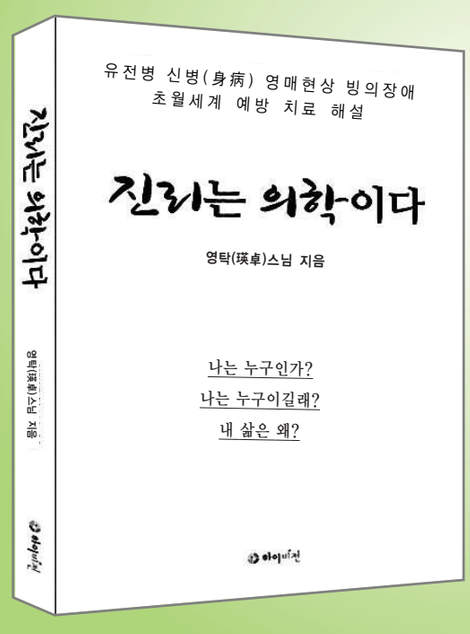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7월 11일 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함께한 10년, 지역과 더불어 성장할 우리'를 개최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에 맞춰 7월 3일부터 1주일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지역사회 떡나눔'을 진행한 바 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10주년 동영상 상영, 직원 감사 인사,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전

당신의 영혼에 연인처럼 다가오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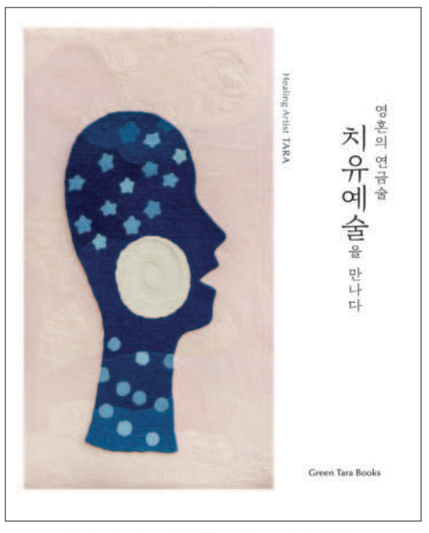
영혼의 연금술 치유예술을 만나다

詩, 통찰, 치유, 명상, 수공예와
순수예술이 cross over 된 예술,
분화되기 이전의 통합예술을 꿈꾸며
20년간 준비 해 온 작가,
Healing artist TARA의 작품에세이.

작품 한 점 한 점, 글 하나 하나가
모두 영감과 명상으로 완성된,
작가의 혼이 담긴 책.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힐링 에너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자_ Healing artist TARA



200×240 | 206쪽 | 정가 19,000원 |
그린타라북스 ☎ 041-533-2020



'숲'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드리기 위해 이 책을 지구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모든 건 실체가 없다… “감각에 속지 말라”

예술의전당 동양학아카데미 ‘현대과학과 연기론’

양형진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반야심경〉의 일부분인 이 구절은 감각기관 육근(六根)과 그로 인해 받아들이는 육식(六識)이 본래 무상한 것임을 설한다. 모든 것은 각자의 감각기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에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순 없을까? 양형진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는 7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동양학아카데미서 ‘현대과학과 연기론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양 교수는 “바닷물이 짜게 느껴지는 이유는 염화나트륨 때문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각기관 때문”이라며 “고등어에게는 바닷물이 짜지 않다. 즉 모든 존재는 물질의 본성이 아닌 감각기관으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지선 수습기자



양형진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학사 ·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산하대지가 참빛이다(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과학으로 세상 보기〉 등이 있다.

사진=박진형 수습기자

일체의 모든 것이 ‘무상(無相)’이라는 철저한 자각에서 불교는 출발합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연기(론)’입니다. 또한 여기서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세계를 잘못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속는다’고 하죠. 세계를 제대로 보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과학’입니다. 불교가 아무리 무상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을 통해 세계를 잘 보면 일체 현상이 무상이고 무아인 게 드러납니다.

자연과학에서 물을 관찰할 때 물은 산소원자 1개와 수소원자 2개가 모여 이룹니다. 산소원자, 수소원자 각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의 성질은 없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인연을 맺으면서 창조적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서로 연관됐을 때 새롭게 생겨나는 속성입니다. 우리 세계는 자연 속에 선 9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2개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할 것 같지만 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의 결합에 따라 생명물질이 만들어지고 생명물질의 결합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생명체 중 인간들이 연기하고 의지하면서 인간사회를 만들고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연관과 의존의 관계가 있기에 이 세계에는 92개 원자뿐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존재자들에게 자성(資性),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하나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무(無)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空)입니다.

걷는다는 것. 어떻게 걷는 게 가능할까요? 다리가 있고 근육과 뼈가 있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된다면 왜 얼음위에선 제대로 걷지 못할까요? 걸음은 물리적으로 내가 땅을 뒤로 미는 ‘작용’입니다. 그럼 땅은 반대로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건 나의 작용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땅을 미는 작용을 할 때 동시에 땅은 나를 미는 반작용을 하기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죠. 얼음위에선 나도 얼음을 못 밀고, 얼음도 나를 안 밀어주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작용과 반작용,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간다는 이 간단한 사건에 전 지구가 참여하는 것이죠. 걷는 것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건에 우주의 모든 게 참여한다는 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피연생과(彼緣生果)’입니다. 하나의 인이 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이 개입돼야 한다. 연으로 인해 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과에 대한 불교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성입니다. 걷기 위해서뼈, 근육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과 내가 서로를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보더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의미,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세계

불교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보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우유의 속도는 얼마인가를 계산해봅시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는 사람한테는 우유가 정지해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우유는 기차와 함께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의 속도를 물었을 때 두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은 그 대상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잘 지은 쌀밥, 예쁘게 핀 꽃은 깨끗하고 분뇨는 더러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똥구리와 파리가 볼 때는 분뇨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분뇨의 본성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내 신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비유했다고 비난하실 수 있는데 현실과 맞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가 1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속도는 초속 30㎞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초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빠른 탈것을 타본 적 없을 텐데 사실 우리는 매일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펜을 들어 보이며) 이 펜의 속도는 뭐죠? 정지죠. 지구 밖에서 보면 이 펜의 속도는 초속 30㎞일 텐데 우리가 이 펜의 속도가 정지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라는 탈것을 타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체를 보는 사람에 의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모든 존재의 세계 인식은 각자 감각기관 따라 달라 연기 의해 세계 나타날 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자”

고등어에게 바닷물이 짤까요? 분명히 짜지 않을 겁니다. 인간에게 바닷물이 짠 이유는 우리의 인식 때문입니다. ‘바닷물 안에 염화나트륨이 있기 때문에’라는 대답은 완결된 답이 아닙니다. 내가 고등어와 다르게 염화나트륨을 짜다고 느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본성이 짜서 우리가 짜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7가지색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면 무지개는 9가지 색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만 볼 수 있다면 무지개는 2가지 색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대상의 본성과 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나에게 단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일종의 상호연관, 상호의존입니다.

모든 것은 텅 비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수소원자는 프로톤 양성자(원자핵)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양성자 반지름이 1㎝라면 전자는 500m입니다. 1:50000 비율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원자 전체의 0.06%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원자핵이 방울토마토 크기라고 가정하면, 99.94%가 방울토마토에 모여 있고 나머지 0.06%인 전자의 길이는 1㎞인 거죠. 이 말은 원자는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량은 양성자에 몰려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텅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손이 책상을 통과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속이 꽉 차 있어서가 아니라 원자끼리 결합함과 동시에 원자를 감싸고 있는 전자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반발력이 생겨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엔 물체가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벽이 만져집니다. 벽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물체는 텅 빈 공간에 불과한데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하늘은 회색이고 밤하늘은 까맣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늘이 푸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이 대상을 변치 않게 푸르게 보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럼 하늘 자체가 푸르다는 자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빛의 산란입니다. 푸른색 계열의 빛이 산란돼서 파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하늘 사이의 무한한 인연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산소가 있는 공기조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 화성에도 공기가 존재하지만 산소는 없습니다. 지구의 공기조성비가 여타 행성과 다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구 생명체가 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가 35억 년 전부터 긴 세월동안 만들어낸 것이 지구대기입니다. 그 지구대기에 빛이 반사돼 산란되어 오는 걸 보고 우린 하늘이 파랗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 역사가 하늘에 개입된 것이죠. 그 개입 없이는 지구의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35억년의 생명진화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구는 목성, 토성과 같은 공기조성비를 가졌을 것이고 하늘도 파랗지 않았겠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하늘이 파랗다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한 인연이 집적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연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을 보는데 인간은 마시는 것으로, 천인들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물고기는 집으로, 아귀는 고름으로 봅니다. 하나의 물을 보고 4가지의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4가지뿐이 아니겠죠. 이 말은 주관이든 객관이든 무자성, 무아무실체임에도 불과하고 무한한 인연이 성립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세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하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다른 존재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기본 씨앗이 있어야겠죠. 무상이 쓸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동서 문명 교차로서 만난 우리의 先賢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⑬ 파밀 고원



파밀 고원의 전경. 험로 중의 험로였던 이 길을 신라 구법승 혜초는 도보로 넘어 해동에 불법을 전했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먼 것을 한탄하고
나는 동방으로 가는 길이 먼 것을 애달파한다
길은 거칠고 산에는 눈이 쌓였으며
험한 골짜기엔 도적도 많다
새도 놀라 뽀족 솟은 바위 끝에서 나르고
사람은 좁은 통나무 다리 건너기를 어려워한다
평생 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으나
오늘은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구나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727년 신라의 혜초 스님이 읊은 노래이다. 그것도 파밀 고원을 넘어 토화라라는 곳에서 중국 사신을 만나 지은 오언시이다. 얼마나 험한 길이면 새조차 놀라 바위 끝에서 날아갈까. 게다가 산적까지 출몰하여 괴롭히고 있으니, 문자 그대로 험로가 아닐 수 없다.

혜초 스님은 인도 구법여행을 마치고 당나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인도 갈 때는 해로를 선택했으나 귀로는 카라코럼 하이웨이의 육로를 선택했다. 그래서 파밀 고원을 넘어야 했다. 이런 내용은 그의 기행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담겨 있다. 이 문헌을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혜초의 존재도 몰랐고, 또 그가 신라의 구법승인지도 몰랐다. 20세기 전반의 학문적 성과의 하나로 우리는 '혜초'라는 민족적 보배를 안게 되었다.

"차디찬 눈이 얼음까지 끌어 모으고/ 찬바람이 갈라져라 매섭게 부는구나/ 망망대해는 얼어 붙어 단을 갈아놓은 듯/ 강물은 제멋대로 벼랑을 갉아 먹는구나/ 요문엔 폭포수마저 얼어 끊기고/ 우물 테두리는 도사린 뱀처럼 얼었구나/ 불을 벗 삼아 층층 오르며 노래한다마는/ 과연 저 파밀 고원을 넘을 수 있을 수 있을는지."

시꺼멓게 우뚝 솟은 바위 산, 그 끝마다 뾰족뾰족 칼날을 세워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사이사이의 골짜기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입체감을 더해 준다. 혜초가 노래한 현장감이 돋보이는 풍경이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밀 고원, 굽이굽이, 오르락내리락, 출렁거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험한 고개 파밀, 거기를 총령(葱嶺)이라 부르기도 했다. 얼마나 높고, 험하면,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끝자락, 동서 교류의 길목, 비록 '하이웨이'라고 명명했지만 죽음의 길임에는 틀림없으리라. 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하기야 뒤에 오는 나그네는 해골을 이정표 삼아 길을 찾는다 했다. 해발 4000m의 고지. 여름이 되면 이 높이까지 눈이 녹는다. 그래서 초지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양 같은 동물을 방목할 수 있는 해발의 높이이다. 그래서 티베트의 라사 혹은 라닥의 레 같은 고산 도시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해발 4000m, 엄청난 고산이다. 서울 남산의 높이가 겨우 500m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협곡을 넘고, 만년설의 고산을 넘고, 또 카라카리 호수 같은 거대한 호수를 넘고, 강을 건너, 인도의 간다라 지역과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연결하는 길. 그 카라코럼 하이웨이의 중국 쪽에 파밀 고원이 있다.

동서 교류의 교통로이기 때문에 파밀은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국의 많은 구법승들이 이 길을 따라 인도로 갔다. 물론 종교 이외 교역이나 외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 길을 넘기도 했다.

8세기 무렵 파밀 지역은 고원국가 소발율국(小勃律國)이 있었다.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전략지구였다.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던 토번(티베트) 국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당의 문성공주를 티베트로 시집보내야 할 정도로 국력이 우월했던 토번. 그 토번은 737년부터 소발율국을 지배했다. 이들 양국은 왕실간의 결혼정책 등으로 우의를 다지고 있었다. 당의 입장에서 소발률국 점령은 지상 과제였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고산지대였다.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소발율국을 지배해야 서역을 지배하게 되고, 이는 동서 교통로의 확보를 의미했다. 그래서 당나라는 고선지 장군을 현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고구려 유민의 아들 고선지가 중국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역사상의 인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727년 신라의 혜초가 걸었던 파밀을 20년 뒤에 고구려의 후예 고선지가 걷게 된 것이다. 혜초는 소륵에서 쿠차까지 1개월 가량 걸렸다.

파밀의 절경을 보면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고구려의 후예를 가슴에 품어야 하니, 묘한 느낌의 나그네 길이다. 탐험가 오렐 스테인(Aurel Stein)은 그의 기행문(1907)에서 고선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파밀 고원의 석두성의 유구. 이곳은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이 점령했던 전략지구이기도 했다.

험로 중의 험로 파밀 고원
신라 혜초는 이를 넘어서
부처님 法을 해동에 전했네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
파밀 정복하며 용맹함 알려
서방에 종이 기술 전하기도

"상황은 중국 정부가 길기트 계곡에서 가지고 있던 실지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소발율국을 공격하려고 중국의 사진(四鎭)절도사에 의해 시도되었던 세 차례 원정에서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황제의 조서에 의해 747년 안서(安西)부도호 코리아 출신의 고선지 장군에게 위임된 네 번째 원정은 성공 그 자체였다. 이번 원정의 군사 행동은 그 결과의 역사적 중요성으로 보나, 또 이 지역의 고대 지형학 관점에서 잠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세 명의 절도사가 소발율국 점령을 실패한 이후 고선지 장군에 의한 성공. 스타인은 고선지 원정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고선지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감동했다. 일찍이 국내 그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때, 유럽의 탐험가는 고선지를 '발견'했다. 고선지는 당 현종의 명령으로 군마를 제공한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그는 총사령관 역할의 행영절도사(行營節度使)였다. 베크위스(Christopher Beckwith)는 〈구당서(舊唐書)〉를 토대로 하여 고선지의 행로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들은 15일 만에 쿠차에서 악수(발환성)에 도착했고, 그리고 10여 일만에 구스틱(악비덕)까지, 10여 일만에 카쉬가르(소륵)까지, 20여 일만에 총령(파미르 고원)의 요새(총령수착)까지, 20여 일만에 파미르 계곡(파밀천)까지, 그리고 테레만(특륵만천)까지, 그런데 테레만이 바로 오식닉 국인데 20여 일만에 도착했다. 물론 그 원정 일정에서 언급된 지점에서 여러 날 머무르기도 했다." 〈Tang China and the Arabs〉

고선지의 파밀 정복의 행로가 자세하게 정리되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쿠차에서 고산의 카라코럼 하이웨이의 험로를 군마 병정 1만 명을 이끌고 간 대원정의 길. 이렇게 하여 올라간 파밀, 거기서 본격적으로 만나는 타쉬쿠르칸, 돌궐어로 석보(石堡)라는 의미이다. 혜초 스님보다 약 1세기 앞서 파밀을 지나 간 현장법사는 그의 〈대당서역기〉에서 이곳을 불법이 융성하나 소승불교가 유행한다고 적었다.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시꺼먼 산. 그 주름진 산세는 더러 만년설을 이고 있고, 또 기묘한 형태를 자랑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절경이다. 타쉬쿠르칸의 거리를 거닌다. 나는 석두성의 폐허 위에 올라가 본다. 역사는 과거로 돌아갔고, 폐허의 잔해만 남아 바람을 맞고 있다. 석두성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저 멀리 연운보(連雲堡)쪽을 바라본다. 바로 고선지 장군이 점령했던 전략지구이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되는 행군의 현장이다. 그 주위의 굴곡진 산 능선들, 자연은 위대할 따름이다. 과거의 전쟁은 바람에 휩쓸려가고 아름다운 풍광만 남아 있다. 성터에서 눈길을 아래로 주니 초원이다. 드넓은 벌판을 가득 채운 초원,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땅이리라.

고선지는 누구인가. 중국인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고구려 이민족 출신이면서, 서역 정벌의 현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장군. 747년 당 현종의 명령에 따라 토번 정벌의 사령관 고선지. 10만 명의 토번군이 주둔하고 있던 연운보를 불과 1만 명의 군사로 점령했던 전략가. 고선지의 소발율국 점령은 서방 72개국으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는 전과(戰果)를 얻었다. 고선지의 성공은 그 자신이 안서사진절도사(安西四鎭節度使)라는 직함으로 승진하게도 했다. 이는 서역의 최고 직책으로 고선지의 위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파밀에서의 성공은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했다. 그래서 고선지는 사마르칸트까지 영역을 넓혔다. 당의 서역 경영은 아랍세계의 견제를 이루었다. 하지만 고선지의 영광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종말로 접어들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 고선지 장군의 휘하 병사들에 의해 종이 만드는 제지술이 서방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이' 만드는 기술은 유럽지역을 놀라게 했고, 13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체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1000년가량 늦은 종이의 역사이다. 종이는 문명발달사의 상징적 존재가 아닌가.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불교 · 기독학자, '탈종교' 화두를 들다

레페스 포럼, 11~12일 금선사서 토론회

"2015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질문했다. 이내 자답했다. "바로 한국사회에서 무(無)종교인 비율이 유(有)종교인 비율을 인구통계상 처음으로 앞지른 해입니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무종교인은 2749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1%에 달한다. 2005년 조사 당시 47.1%보다 약 9%로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근 한국 종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탈종교화'이다.

불교와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인 레페스 포럼은 7월 11~12일까지 서울 종로 금선사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을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모임에는 은유와 마음연구소장 명법 스님을 비롯해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원영상 원광대 연구교수, 류제동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 불교학자들이 참여했으며, 기독교 학자로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탈종교화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은 이도흠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탈종교시대에서 불교의 재해석과 지향점'을 통해 △탈근대 문화현상 △절대자 믿음에 대한 회의 △신자유주의체재로의 종교 편입 △제 역할 못하는 종교 등이 탈종교 현상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교단들이 탈종교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퇴행적이거나 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명상과 치유, 수련회 등 종교의례와 수행의 대중화는 대중들에게 종교의 저변을 넓히는 것 같지만, 이는 대중들이 종교를 이지나 상품으로 소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임시방편으로 해소 · 고착화 한다"면서 "이는 종교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상품화해 시장체재로 편입시킨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은 '탈종교'가 아닌 '탈사회화'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며, 현재 종교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본래 색깔(宗教本色)'이 무엇인지라고 역설했다.



불교와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인 레페스 포럼은 7월 11~12일까지 서울 종로 금선사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을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 기독학자 12명 참여해
주요 기성종교 폐단들 지적
"비종교적 인성가진 신자多"
종교 본령과 성찰 복원해야

정 원장은 "현재 종교계의 탈종교화 대응은 근본주의적 교리와 제도를 강화 · 성장하거나 '종교색'을 빼고 전법 · 선교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된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통의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종교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존재 이유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표 교수는 비종교적 인성을 가진 종교인 · 신자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특정 종교의 지도자나 성직자들의 의식구조는 물론 그들의 신자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교의 상업화, 물신화, 특정인 우상화, 기복화, 권력화 등과 같은 비종교적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교단적 차원의 겸허한 자기비판과 이를 자초한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는 자신이 시작한 비형식 교회 '가나안 교회' 사례를 소개하며 탈종교화 시대에 필요한 종교교육은 종교 신뢰 · 영성 회복과 이웃종교간 대화 등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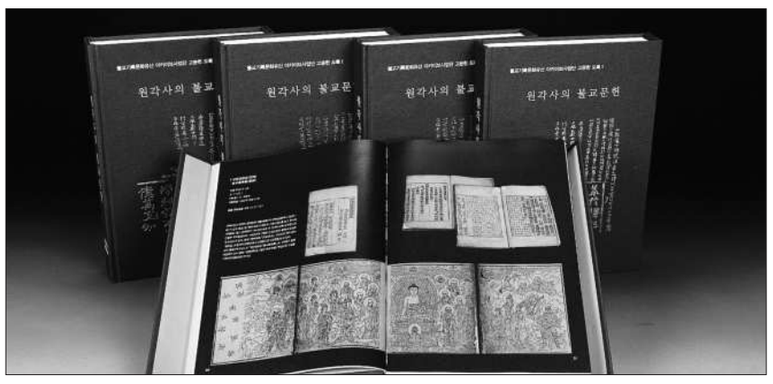
한편, 레페스 포럼은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에 대해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주도로 회복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로 인해 손 교수는 해직됐다. 이후 불교와 기독학자들은 종교간 평화를 위해 '레페스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원각사 소장 고문헌을 망라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각사 불교문헌〉 출간

2014~15년 1년여 조사
483종 612점 도록 수록
불교 서지학사 우수 자료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고양시 원각사 소장 문헌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집대성한 〈원각사의 불교문헌〉을 발간했다.

고양시 원각사에 소장된 고문헌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됐다. 이번 도록은 불교 고문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해 의미가 크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이하 동국대 ABC사업단)은 "고양시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소장 중인 고문헌을 집대성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 고문헌 도록 1, 원각사의 불교문헌〉을 출간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원각사 소장의 고문헌을 1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총괄책임 한상길 집성팀장)는 7명의 전문 연구원과 11명의 연구보조원, 5명의 촬영팀이 투입됐고, 총 54개 항목에 대한 정밀한 서지조사와 함께 5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에 출간한 도록에는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이 조사한 불교문헌 335종 422책과 다라니 89종 123매, 불교 외 문헌 59종 67책을 수록했다. 도록 앞부분에는 조사개요로서 문헌을 시기별 · 판종별 · 형태별 · 주제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원각사 전체 문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문헌 수록 순서는 불교문헌은 △경장 △율장 △논장 △사휘 △중국찬술 △한국찬술 △일본찬술 △사지(寺誌) △불교연계문헌의 주제 순으로, 다라니는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시기 순으로, 불교 외 문헌은 경 · 사 · 자 · 집의 주제 순으로 배열했다.

이 가운데 〈묘법연화경(언해) 권 1, 4(보물 제1010-2호)〉을 비롯한 불교문헌 13종 18책과 고려시대 다라니 일괄(15종 37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2호), 〈자치통감(보물 제1281-3호)〉 등의 지정 문화재들은 수록 순서와 관계없이 앞부분에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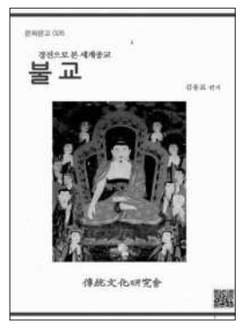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원각사 소장 불교문헌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책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간기가 충실히 남아있는 선본(善本)들이 많다"며 "이번에 출간한 도록은 수록된 문헌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불교 고문헌의 역사와 서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전으로 본 부처님 생애 · 가르침

전통문화연구회 〈경전으로 본 불교〉 발간

저자 김용표 명예교수 참여
〈경전으로 본…〉시리즈 완결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법을 설하며 중생을 제도했다. 80세에 열반에 들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3차례 결집대회를 통해 경전으로 편찬한다. 이는 경 · 율 · 론 삼장으로 성립되고 대장경이 된다. 즉,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어떤 생애를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불교편〉은 불교의 다양한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살펴보면 연기론(緣起論),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등 불교의 핵심적 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와 관계된 경전의 내용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불성(佛性)'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 〈대승열반경〉, 〈승만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에서 불성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독자들이 '불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불교편 저자로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종교현상학적 유형론에 의한 경전 선정과 분류에 따라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세계 7대 종교(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동학, 유교, 이슬람, 힌두교)를 이해하기 위해 7년간 노력한 끝에 2001년에 출간한 책이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요약본 발간이 요구됐고, 전통문화연구회는 2014년 이슬람으로 시작으로 문고판을 출간해왔다.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문고판 시리즈는 '불교'편으로 최종 완간됐다.

신성민 기자

만해 · 효당의 삶을 살피다

만해학회, 27일 학술세미나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제1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효당 최범술의 삶과 불교(최화정, 동국대)' '일제하 효당 최범술의 일본유학과 교육활동(제점숙, 동서대)' '효당과 다솔사의 김범부(최재목, 영남대)'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김광식, 경북대)', '효당 최범술의 차살림살이와 반야로 차도(채정복, 효당차도문화원장)'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박몽구(순천향대), 김은영(동국대), 김주현(경북대), 전기철(숭의여대). 류건집(원광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울산 길상사' 개원

8월 5일 개원법회… 교육원으로 활용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역경원의 교육원 역할을 할 길상사(주지 범국) 개원법회를 8월 5일 봉행한다. 이날 개원법회는 달라이라마의 외교 특사이자 티베트 망명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삼동린포체를 초청해 열린다.

개원법회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티베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8월 5일 개원식에 이어 6일까지 삼동린포체의 보리도등론 법문이 이어지며, 수계법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한편,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이번 달라이라마 법문은 티베트대장경역경원에서 주관하고, 조계종 스님인 경우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거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살아서도 죽어서도 수행자답게

세속화된 장례문화, 승가에도 만연
생가 복원 · 기념관이 고승 만드는가

인도에는 상여문화가 없다. 죽은 사람을 옷(사리)으로 말아 장대에 끼워 둘이나 넷이 어깨에 메고 화장터로 간다. 티베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자루에 넣어 소 등에 태워 사찰부근의 천장터로 향한다. 천장터에서 자루 속의 시체는 작두칼에 육신이 나뉘어져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몽골에서는 죽은 사람을 마차에 싣고 달리다 시체가 떨어진 곳에 봉분 없이 평장을 한다. 말과 소, 염소들에게 평장한 곳에서 자라난 풀을 보시하는 의미이다.

중국의 운남성에는 바위절벽에 시체를 뒤 바람과 새들에 의해 두개골만 남기게 하는 장례풍습의 소수민족도 있다.

네팔에서는 인도처럼 화장 문화가 앞서가고 있으나 강 주변의 주민들은 시체를 강물 깊은 곳에 수장해 물고기에게 육체를 보시하는 곳이 많다.

인도의 타르사막같은 곳에서는 화장할 나무도 강물도 없어 죽은 사람을 사막의 공동묘지에 옷 입은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다. 시체를 처리하는 생쥐 떼들이 시체의 옷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케멀사파리 중에 누구나 보게 된다.

바라나시의 강가에서는 새벽시간에 어린 아이의 시체를 긴 천에 담아 엄마아빠가 앞 뒤 에서 들고 와 강가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룬 후 발가벗긴 죽은 아이를 강물로 던진다. 팔뚝만한 고기떼들이 아기시체에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몽골의 일부 지방에서는 죽은 시체를 집 앞의 큰 나무에 올려놓아 새와 짐승 낮과 밤의 자연의 변화에 맡기는 곳이 있다.

장자(莊子)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자와 나눈 대화다.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석관(石棺)과 옥관(玉棺)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장자가 누운 자세로 제자들을 불러 물었다.

"그대들은 웬일로 그리 분주하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해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장자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늘과 땅으로 나의 관(棺)을 삼을 것이며 해와 달로써 무덤의 석등(石燈)을 삼을 것이다. 또한 하늘의 무수한 별로써 상여의 장식을 이룰 것이며 만물은 있는 그대로 제물(祭物)이 마련됨과 다름없으니 한 가지도 부족할게 없다.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장례의 도구를 완비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 여기에 더한단 말인가?"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관도 없이 그냥 하늘과 땅의 기운에 스승님의 몸을 맡겨두라는 말씀이온데 그리하면 독수리나 솔개 까마귀들이 스승님의 몸에 생체기를 낼까 두려워 석관과 옥관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죽은 몸을 옥관에 넣고 옥관을 석관에 넣어 독수리나 솔개를 피해 땅속 깊이 묻는다고 치자, 그럴 경우 땅 밑에서 개미나 구더기 등이 죽은 시체를 먹이삼아 득실거릴 터인데 이쪽의 먹이를 저쪽의 먹이로 주려하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현상계에 집착한 모습이 안쓰럽구나."

자, 한국 불교계의 고승들은 살아서도 개운한 자유인의 모습에서 흔들리더니 죽어서는 세속화된 장례문화가 뱀의 허물처럼 개운치 못한 모습으로 긴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조의금 접수대가 등급별로 마련되어 있고 3일 장례는 찾기 어렵고 5일 장례가 대세이다. 꽃상여는 상식이요 유교문화인 만장행렬은 필수이다. 살아생전에 진리와 한 몸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49재는 생략해야할 터인데 이 절(寺) 저 절(寺)로 일주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라져야할 세태이다.

한 인물의 바른 평가는 사후(死後) 최소한 한 세기는 지나야할 터인데도 고승의 생가(生家)복원에 기념관 짓는 모습이 진정한 고승(高僧)의 뜻인지 묻고 싶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수행자답길,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무착(無着)과 문수보살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옛날의 고승들은 특정 보살을 친견하기를 서원하여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신라 때 자장 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하며, 의상 대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한다. 이는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다. 지극한 신심의 정성에 의한 감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선화(禪話)에서도 보살친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많다.

무착문희(無着文喜:821~900) 선사는 위앙종 스님으로 앙산혜적(仰山慧寂)의 제자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비구가 된 후 〈사분율〉을 배우고 제방을 편력하다 당 무종의 불교말살을 획책한 회창폐불사태(會昌廢佛沙汰)를 만나 한때 일시적으로 환속하여 살다 다시 절에 들어와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그러던 중 홍주 관음원에 이르러 앙산을 만나 법을 묻고 깨달음을 얻어 그의 법을 이었다.

무착 선사가 오대산을 찾아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설화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네 칙(則)으로 소개되어 있다. 1436칙에 나오는 대화다. 무착 선사가 문수 보살을 친견하고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문수 보살의 주처(住處)로 알려진 오대산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으로 화현한 문수 보살을 만났다.

문수 보살이 무착 선사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말법의 비구가 계율을 지키는 이가 적습니다."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혹 3백, 홀 5백이 되기도 합니다."

무착 선사가 되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지내네."

"대중들은 얼마나 됩니까?" "앞도 삼삼(三三) 뒤도 삼삼(三三)이라네."

이 말이 후에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란 공안(公案)이 널리 알려졌다.

이 이야기에 이어 다음 1437칙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전개된다. 문수보살이 유리잔을 들어 무착 선사에게 물었다.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착 선사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해가 져서 자자고 하니 문수보살이 말했다.

"그대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기서 잘 수 없다."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는 계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20년입니다."

문수 보살이 말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을 몹시 좋아하는 구나."

그리고 균제동자를 시켜 내쫓으라고 하였다. 무착 선사가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화상께서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 했는데 그게 얼마인가?" 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착 선사가 고개를 돌리자 동자가 물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자 무착 선사가 보니 조화로 된 절에 편액(篇額)이 없어 동자에게 물었다. "이 절 이름이 무엇인가?" 동자가 손으로 금강(金剛)신장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무착 선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화로 된 절도 자취를 감추었다.

1438칙 1439칙에도 목환자(木槵子:염주)이야기와 문수(文殊)이야기가 이어져 나온다. 무착 선사가 오대산에 갔다가 어느 날 행랑(廊下)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물었다.

"대덕은 어디서 왔소?"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목환자 염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지고 오셨소?" "좋은 것은 없고 거친 것 하나 있습니다." "내게 좀 보여 주겠소?"

그리하여 무착 선사가 목환자를 주었더니 노인은 이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번 한 노인을 만나 무착이 물었다. "문수가 아니십니까?" "어찌 두 문수가 있으리오."

절을 하였더니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능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일 뿐 제2문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났다? 이것도 '무착봉문수(無着逢文殊)'라는 공안이 되었다.

보리심, 중생을 즐겁게 하는 원인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②보리심을 가져야 할 이유

欲與一切眾生無量大樂當發菩提之心。何以故。菩提心者。是一切眾生樂因。一切諸色不離四大。一切樂事不離菩提心。怪哉。云何 ⿰不畏生死之苦乃畏無畏菩提之心。若欲止息一切眾生苦者。無過發菩提之心。發菩提心者是初止息因。初止息得無上止息。得財寶利不如得功德利。得功德利不如得智慧利。得智慧利不如得菩提心利。若放逸廢忘不念菩提心者。如禽獸無異。汝今云何不發悲心。當知悲心者⿰是大菩提。欲趣向佛智應發菩提之心。為結使所障者不能發解脫之心。為業報障者不能發菩提之心。云何邪趣。云何正趣。為有愛所牽以四空為解脫者名為邪趣。發菩提心修八正道名為正趣。為得富報者修行於施。為得樂報者修行悲心。為欲救濟安樂為生者當堅發菩提之心。不修福者有三事難得。一者不得親近善友。二者不能悲心厭離。三者不能敬 ⿰佛慧。未發菩提心者應當發心。若發菩提心者得一切種智。

번역 | 일체의 중생에게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려 한다면 응당 보리심을 발할지니, 왜냐하면, 보리심이란 일체중생을 즐겁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색(色)이 사대(四大)를 떠날 수 없고, 일체의 즐거운 일도 보리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찌하여 그대는 생사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없음(無)과 보리심은 두려워합니까. 만약 일체 중생의 고통을 멈추려 하거든 발보리심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발보리심은 처음 원인을 그치게 하며, 처음 그쳐서 위없는 그침을 얻습니다. 재물을 얻는 이익이 공덕을 얻는 이익만 못하고, 공덕을 얻는 이익이 지혜를 얻는 이익만 못하며, 지혜 얻는 이익이 보리심 얻는 이익만 못하나니, 만약 제멋대로하고 포기하면 보리심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찌 자비심을 발하지 않는가요. 응당 알 것은 자비심이 곧 대보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고자 하면 응당 보리심을 발할지니, 묶여서 장애로우면 해탈의 마음을 발할 수 없고, 업보의 장애로도 보리심을 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삿된 데 나아간다고 하며, 무엇으로 바른 데 나아간다고 합니까. 애착에 이끌리며 사공(四空)으로써 해탈이라 하는 이를 삿된 데 나아간다고 하며, 발보리심으로 팔정도를 닦는 이를 바른 데 나아간다고 합니다. 부유한 과보를 얻고자 하면 보시를 수행하고, 즐거운 과보를 얻고자 하면 자비심을 수행해야 하며, 중생을 구재하여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이는 응당 발보리심을 굳건히 합니다. 복을 닦지 않고는 삼사(三事)를 얻기 어렵나니, 첫째 착한 친구를 가까이 얻지 못하며, 둘째, 자비심으로 버리지 못하며, 셋째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공경하지 못합니다. 보리심을 발하지 못한 이는 응당 발심할지니, 만약 보리심을 말한 이는 일체의 종지를 얻게 됩니다.

해설 | 무색계(無色界)의 네 곳을 사공처(四空處)라 하고, 무색계의 네 곳 하늘세계를 사공천(四空天)이라 하며, 이 무색계인 현상을 여읜 세계관을 선정으로 삼는 수행을 사공정(四空定)이라 한다. 그런데,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애착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겠는가. 남들에게는 보시를 설파하면서 뒷구멍으로 재물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겠는가. 불교지식은 있을지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해탈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염불은 돈벌이 수단이 되고, 경전은 속임수의 삿된 지식일 것이다. 입으로는 〈금강경〉의 무상(無相)을 말할지라도 속으로는 무상함을 두려워하고, 보시를 말할지라도 발보리심을 두려워 할 게 뻔하다.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夏安居, 어린이 · 청소년도 함께해요!

〈하안거〉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실시

매일 '감사 일기' 작성하며
수행책자 따라 진행 · 점검
앱 '밴드' 통해 상황 기록
사찰별 입재, 8월 25일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계획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들이 안거에 들어간다. 여름방학 동안 안거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맞고, 생각과 행동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회장 성행)와 공동으로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이하 내 안의 감사향기)를 진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안의 감사향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심산 스님, 사무총장 정관 스님, 기획국장 석산 스님, 사무국장 능후 스님, 운영위원 학산 스님, 박용하 실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김경숙 홍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내 안의 감사향기'는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안거 동안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행책자 〈내 안의 감사향기〉에 따라 진행하고 점검 받으면 된다.

책자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수행 전 몸을 씻고 주변을 정리 후 입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후 한글 예불문과 칠정례, 반야심경, 수행서원문, 발원문을 낭독한다.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함과 참회 그리고 선행을 기록한다. 이후 수행일기를 읽어보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떠올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염송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삼배를 올린다.

참가자들은 각 사찰에서 입재식 후 7일 간격으로 주지(법사) 스님께 직접 점검을 받고 칭찬 및 격려를 받는다. 아울러 매일 사진을 찍어 사찰별 '밴드'에 올리고 공유하며 수행상황을 기록한다.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를 격려로 이끌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에서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밴드에서 서로 글을 공유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안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혜안을 갖게 되며 뇌 주파수가 변화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감사 에너지를 가져 행복한 삶을 알게 하는 쉬우면서 어린이들 눈높이 맞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1일 안거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어린이 법회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안거를 발전시켜 동안거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이며,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청소년자기 도전 포상제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인성프로그램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심산 스님은 "전법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 정책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입재는 7~8월 방학 중 사찰별로 한다. 회향은 8월 25일 오후 5시 홍법사에서 진행된다. (051)864-4569

하성미 기자

동명대, 캄보디아에 꾸준한 자비 펼쳐

7월 3~18일 글로벌 나눔 활동
동명대 후원 놀이터 개장식



부산 동명대가 캄보디아에 글로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7월 10일 동명대가 후원한 베사반초등학교 놀이터 개장식 모습.

캄보디아에 글로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부산 동명대(총장 정홍섭)가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었다.

동명대가 후원한 베사반초등학교의 놀이터가 마침내 개장했을 뿐 아니라 앙코르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대학 내 캄보디아 봉사단 구성 등을 실시한 것.

놀이터는 동명대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회장 강의구 캄보디아 명예총영사)가 지난 5월 1,000만원을 기부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씨엠립 교육청장, 베사반초교장, 마을 대표, 손봉국 NGO대표, 최인규 앙코르대학 부총장과 베사반초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동명대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2015년 반테스레이시청광장 공중화장실 건립, 2016년 캄보디아 브레이또텅 초등학교 책걸상 제작 등 매년 캄보디아에 약 500만원을 후원해왔다.

이후 노태정 동명대 부총장은 앙코르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및 장학사업 관련 MOU를 7월 11일 체결했다. 아울러 이번 봉사기간 중 통역봉사를 하는 앙코르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명대는 또한 캄보디아 봉사단을 구성했다. 캄보디아 봉사단은 7월 3~18일 시엠립주 베사반(Vessvan)초등학교, 이레고아원, 수상빈민가 등지에서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한글교육 등 전공연계봉사, 거리문화공연, 놀이터건립 등 글로벌 나눔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동명대 재학생 28명(남13 · 여15)과 교수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재학생들의 뜻 깊은 기부 후원도 이어졌다. 지난해 '꿈ER'을 창업한 윤재서(경영학 4년) 학생외 재학생 2명이 신발 50족을 기부한 것. '꿈ER'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해 신발을 제작하고 제3세계 아이들이 상피병 예방을 위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다. 상피병은 열대지방에 주로 나타나는 발질환으로 코끼리 피부처럼 발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질병이다. 신발은 시엠립주 반테스레이 브레아다 따꼬에 위치한 이레 고아원에 기증됐다.

정홍섭 총장은 "지난 3년간 재학생들의 온몸 봉사로 인해 교수와 직원, 재학생창업기업 동문회까지 참여하는 거교적인 해외봉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인 최인규 박사가 부총장(석좌교수)으로 재직 중인 앙코르대학과도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북한이탈주민 돕는 '사하어묵카페' 개소

7월 11일 사하지역자활센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불교계 복지법인이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이 운영하는 사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희)가 '부산어묵'(수제어묵카페)을 7월 11일 개소했다.〈사진〉

'부산어묵'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자리했으며 지역 대표 먹을거리 이름을 그대로 이용했다.

부산어묵카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4명과 지역주민 2명 총 6명이 운영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3년간 지원되며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자활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사하지역자활센터는 3년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은 어묵제조업체 (주)부산어묵과 협약을 맺고, 제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한다. 이승희 사하지역자활센터장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립 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사업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오조가사 불사 원만 회향



통도사(주지 영배)가 7월 11일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통도사는 지난 가사불사 기간 동안 영산전에서 스님들의 오조가사를 손수 지어왔다.

가사불사 회향은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지 영배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앞서고 재가자들은 가사 행렬에 꽃잎을 뿌리며 장엄했다.

설법전에서는 방장 직무대행 성파 스님이 가사를 점안했다. 성파 스님이 가사를 수한 후 통도사 선다회가 대중을 대신해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스님에게 가사를 전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가사는 스님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며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 율사의 가사가 봉안돼 있다. 그리고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가사원이 있어 가사의 참 정신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갓바위,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으로 유명한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주지 법성)는 7월 8일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를 갓바위 실내 법당인 유리광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선본사 갓바위 주지 법성 스님 및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 예수재 의식을 통해 선근공덕을 미리 닦으며 업장소멸과 복덕을 기원했다. 이어 유리광전에 모신 삼천 소불의 몸을 청정 감로수로 씻고, 불상에 감로수를 뿌리는 관정이운 의식에 모두 동참해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원했다.

증명법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오늘,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바깥으로 모시면서 밝은 미소로 관욕시켰다. 입과 몸, 뜻을 청정하게 하여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가 청정수행으로 다 같이 부처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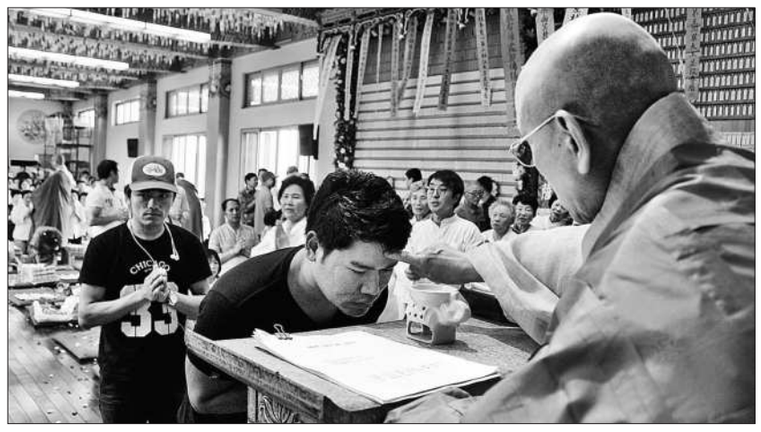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정수기를 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부처님 품안으로”

참좋은우리절, 월주 스님 초청 마정수기법회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직접 마정수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9일 큰법당에서 정유년 윤달 생전예수재 및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월주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도량 앞 관음전서 작법, 향공양, 함합소 배포, 마정수기, 법문, 생전예수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행사의미를 더했다.

월주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금생의 업장소멸을 통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을 증명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전예수재는 업장소멸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는 척도”라고 강조한 뒤 “오늘 마정수기를 받은 불자들은 반드시 선업을 쌓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행복을 얻고 열반경지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운사 하소백련축제서 색소폰 동호회가 관객들에게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열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연꽃축제인 하소백련축제가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하소백련축제는 7월 7~16일까지 열흘간 ‘화중생련, 불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다’란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7일 청운사 무량수전 앞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색소폰 동호회, 아코디언 동호회, 기타 동아리의 식전공연에 이어 행위예술가 강산의 먹행위, 예사랑 무용단의 축원무, 마술공연, 태평무공연, 한국무용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인 8일에는 가수 정수라와 아리랑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대중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연주하고, 대표곡을 열창했다. 이외에도 청운사 무량수전에서는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전북무형문화재 탱화장)의 불화와 달마전이 열렸다. 부대행사로는 연자반(연잎밥), 연칼국수, 연잎차 등 연꽃을 재료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도원 스님은 “여느 해보다 더위가 심하고, 불쾌지수도 높아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한여름의 땀을 식힐 하소백련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 연꽃 향기 속에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복자전거 덕에 학교가 가까워져요”

빛고을나눔나무, 네팔에 자전거 선물 계획
10월까지 기금 모아 100대 직접 전달키로


지난해 광주 빛고을나눔나무가 룸비니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전달한 자전거.

네팔 룸비니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돕고자 한국불교계가 희망의 자전거를 전달한다.

광주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오는 10월 16일 네팔 룸비니를 방문해 지역 3개 초등학교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행복자전거 100대와 학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에도 네팔에 자전거를 후원했으며,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 후원기금 마련 찻집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 행사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서 하루 2~4시간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더 나은 교육환경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전하자는 취지.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학교에 가기 위해 8㎞를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자 한다”며 “하루 통학시간 4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 아이들의 행복도와 교육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복을 선물하는 자전거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지역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금 마련을 위해 빛고을나눔나무는 현재 방송광고와 사찰 모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등산 세심정사에서 10월 14일 후원 일일찻집도 열 계획이다. 지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후원
“통학시간 줄어 도움되길”
전달 앞서 일일찻집 열고
후원 독려해 1천만원 마련

해에 전달한 자전거 100대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행사는 네팔에 스님들과 신도들이 직접 방문해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에게 하나씩 직접 전달한다.

강성록 기획팀장은 “지난해 100대를 선물했는데, 현지에서 자전거가 갖는 의미는 ‘집안의 새로운 교통수단’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월 평균 8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반가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는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빛고을나눔나무에 따르면 자전거를 선물 받은 대부분의 가정은 2~3명의 아이들이 한 자전거로 함께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히말라야 남단에 위치한 룸비니는 높은 산들이 위치한 북부에 비해 비교적 평지를 이루고 있어 자전거 효용성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평가다.

또한 빛고을나눔나무와 함께 행복자전거 지원사업을 돕는 네팔 현지인도 눈에 띈다. 광주에서 노동자로 6년간 일을 하다 고향 룸비니로 돌아가 사업을 하는 고팔 씨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먼 타지에서 일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의 은혜는 잊지 않고 있다.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런 인연으로 고팔 씨는 현지 학교와 마을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집집마다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2015년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연합으로 9600만원을 모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네팔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자비신행회와 기금을 모아 1000만원을 마련해 자전거를 선물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사회 공양주 거듭난 쌍봉사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서
초복 대중공양 봉사해


진안군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에 참여해 점심 대중공양 봉사를 펼친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한 어르신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다.

전북 진안지역에서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쌍봉사는 7월 12일 진안군 정천면 초원가든에서 열린 진안군내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에 참여해 삼계탕 · 휴대용 미니 선풍기 · 밑반찬 등을 나누며 대중공양 봉사활동을 펼쳤다. 쌍봉사 섬김봉사단 불자 10여 명과 함께 동참한 이날 대중공양에는 진안군내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어르신 등 15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때마침 초복을 맞아 진안군시각장애인협회가 마련한 문화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장기자랑과 자원봉사자 가족들의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평소 시각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유독 가슴 아프게 느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마침 초복을 맞아 시각장애인 문화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의 작은 포교당인 쌍봉사는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전개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매월 군내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찾아 점심공양을 대접하는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산 탑사와 함께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후원한 기금으로 ‘사랑의 집’이 마련되는 등 지역사회 모범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유적 등 무등산권 유네스코 인증받을까

현장실사 위원 운주사 등 방문

화순 운주사를 포함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유네스코 현장실사 위원 2명은 7월 1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운주사를 포함해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화순 적벽, 담양 죽녹원 등을 둘러보며 현장실사를 했다.

현장실사가 끝나면 올해 후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등을 심사해 인증권고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 인증여부는 내년 4월께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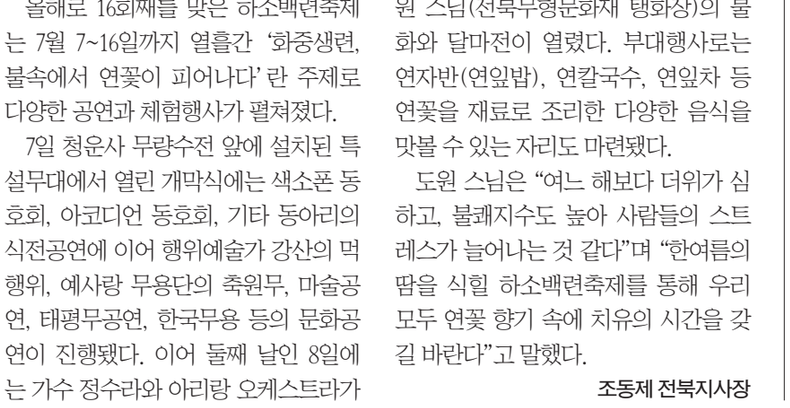
특히 무등산은 증심사, 약사사, 원효사, 문빈정사 등 전통사찰 10여 곳과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한 광주의 진산으로 ‘무등(無等)’이란 이름 또한 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에 이어 세 번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단양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천장사
H·P 010-5960-208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고귀한 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수바라, 나비춤(작법),
염불,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010-7579-8200
금륜사 대진 합장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테라피
(우주기에너지) 1,2,3단계
인상학, 타로, 파동
성명학 모집합니다
010-6284-6172
문자 부터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신통 방편력
땅건물 가게 공장
속히 매매 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예언가 육관 심상현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0년 일본 큰 지진 일어난다
– 27년 한국 큰 지진 일어난다
당선,승진,사업,결혼 등 소망하는 일. 언제된다, 안된다.
예언에 답을 말해준다
010-6357-5152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사찰에서
숙식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운전 대형면허 소지, 65세)
010-6476-6026

법맥이 궁금하시거나 특수기도법을 찾는 스님은 전화 주십시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포교당 계승자 구함
집주인이 포교당 신도 다양한
협조, 권리금 8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교통편리,
10평방, 욕실, 중방거실
강서구 화곡동
02)2062-4488
본 광고는 8월까지 유효합니다

주지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
한 절을 도와 드립
니다.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법납30세, 50대 비구승)
010-2873-81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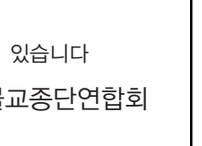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禪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가족같은 작은종단입니다
종단의 확장과 천목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종도스님을 모십니다.
가입서류:입종신청서, 타종단승려증,
명함사진4매, 등본1통,입종후 승려증
임명장,등록증을 드립니다.
남녀,스님이 되고자 하는분 상담환영,
종단운영에 관심있는스님 문의환영,
曹溪 비로자나 불전!
선대한불교조계종 도경사
주소: 부산 사하구 대티로 63번길 75-1

曼盤 구성학 비법강의
많은 실전과 경험의 노하우 입니다.
교재용 책을 드립니다.
영반구성학은 문점순간 보입니다.
초보자반은 영반구성학을 배워서
통변을 못 한다면 구성학과 인연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보반은 쉽고 빠르게 지도 해 드립니다
전문반은 핵심비법을 전수 해 드립니다
입문반: 90만원, 전문비법반: 40만원,
같은 연령이 동일한시간에와도 점사는
모두 다릅니다.
기존의 구성 통변방식이 아닙니다.
오전10:30~11:30 기도시간 전화: 부산(051)206-3488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개 가장 쉽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 강
성명사주학
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학 학원으로 명리, 육효 등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는 역학 전문 학원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이름 속에 감춰진 길흉화복을 통쾌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름만으로도 성격, 직업, 가족관계, 신년운세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개운의 방법!
청록 김건화의 명쾌한 임상 통변으로 본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이름 속에 담긴 운명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대박 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수강대학 : 대박 나는 이름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인 및 작명가로 진출 희망자
■ 개강일자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개강 당일 무료 수강 가능, 자세한 사항 전화 문의
韓國傳統科學아카데미
KOREA TRADITIONAL SCIENCES ACADEMY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길 22(신설동 102-36) 화니빌딩 403호
TEL : 02)929-4646 / H·P : 010-2328-0007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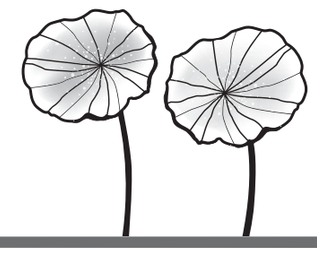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지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서울시 노원구
- 토지 : 210㎡(약70평) • 법당 요사채 마당 주차장 등
- 지하철역 인근 조용하고 살기 편한 사찰
- 가액 : 7억 5천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파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3층 건물 법당. 요사채. 공양간 • 토지 570㎡
- 마을주변. 교통편리. 뒷편은 산인사찰
- 양도가액 : 3억 2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40㎡(103평) • 건물 총면적 : 92㎡(28평)
- 가액 : 2억 3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위치 : 전남광양
◎ 부지 : 600평 ◎ 면적 : 1,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경관수려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9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급)안내

- 진주 부근 사찰 양도
- 토지10,000㎡.단청법당.삼성각.요사2채.주차장
- 산중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사찰
- 안정되고 조용함.기도.포교사찰
- 가액 : 12억원(융자 4억 포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옥천 (다용도 주택)
- 주위편의시설 체육공원, 마트. 관공서, 은행, 전철역,
- 전망 좋음, 대지 257평 건물 40평
- 가액 : 4억 5천 (융자끼고 3억에 입주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 주택 밀집지역
- 2층 148㎡(약 45평)
- 방3,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2000만 월100만 시설비 무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010-8551-3374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차량진입 잘되어있음, 큰도로와 1분거리 근접
- 법당 35평(요사, 종무소, 공양간) 60평
- 임야 4천평, 대지 800평 (수목장 하기 좋은 명당)
- 1,300년된 고목나무 소장하고 있음
- 가액 : 15억(조정가능)

010-4602-966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장기면)
- 대지 500평
- 임야 2,000평
- 법당, 요사 그외 건물 3동
- 가액 : 9억 5천

010-4537-5386
(메모 남겨 놓으시면 연락드림)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기타:석등
- 산신각:10평(목조, 닷집)
- 가액:10억 5천만원
- 특징:도심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
- 법당:35평(2층, 단청, 청기와)
- 요사채 : 35평(1층 종무소)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신도 구성이 잘된 포교 도량임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하천부지 약 100평 (산신각 포함)
- 직접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010-7121-303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 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 철근콘크리트 25평 2층 팬션형
- 건물 앞 좌우로 물이 흐르는 계곡 경치 좋음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 : 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02)571-91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시내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차1대
- 보살님 자리로도 장소 최고 명당
- 가액 : 보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83-1235

포교원(급) 양도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아담한 단독
- 도심속 공기맑고 별장같은 시설
- 비구니 스님들께 옥체 보호도량
- 운영상태 그대로 몸만오실 스님
- 가액: 칠천구백(월세도 가능)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사십만원 (시설비 집기일체 일천만원)

010-5458-2955

일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시내대로변 중심가
- 7년째 하던자리
- 확장이전관계로 임대함 3층 40평
- 법당.방2.거실.공양실.부엌 화장실 2개 단독으로 씀
- 가액 : 보증금 300백, 월40 시설 합1.800백 위치 좋음

010-2847-62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
- 건평 : 30평(4층)
-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여법하게 잘 갖춰져 있음)

010-4908-2579
02-357-2579

사찰,전원주택 안내

-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 대지 190여평, 건물 22평, 목조주택
- 산(소나무숲)아래 남향 집
- 전원주택,별장,암자(사찰 사용으로 최적
- 대형 차량진입 가능
- 2016년 건물전체 올수리
- 가액:1억 9천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건물 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 대 614번지 456평 건물
- 38평 남향 뒷산 주변 국유림 한적하고 다용도
- 현재 공가 사용 용도변경 가능
- 자연식수 검색 또는 현장 답사후 . 개인의 이용에 적합하면 전화주세요
- 가액 : 9,500만원

010-8899-8899
010-7621-76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지방보살,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찰(급)안내 및 전세

- 위치 : 산청군 지리산 내 호수가 아름다운 절
- 평수: 275평
- 목조건물2동(법당, 산신각)
- 모든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 : 일억원

010-3869-67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의사
- 법 명 : 지혜(강부건)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45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new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세로 32㎝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3〉 행복을 위한 씨앗을 뿌리다

사랑엔 경계가 없다… '적' 일지라도

〈敵〉



기쁨, 열반에 이르는 門

사랑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진주처럼, 사랑만이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랑을 길러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 있음과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메따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요양원에서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노인들 모두에게 나무 한 그루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나무를 받은 절반의 노인들에게는, 나무가 그들의 소유이며 자신들이 직접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을 주고 빛을 잘 쬐어 주면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돌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노인들에게는, 나무를 보고 즐길 수는 있지만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노인들의 나무는 요양원 직원들이 돌보았지요. 1년 뒤 연구자들은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무를 손수 돌보도록 요청받은 노인들은 보통의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으며, 세상에 더욱 마음을 쏟으면서 열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무를 직접 돌볼 책임이 없었던 노인들은 그저 평균적인 수준의 수명과 건강, 주의력, 사회 참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무엇보다 삶에 활기를 주는 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힘, 사랑의 힘, 친밀감의 힘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 힘이 바로 메따가 우리 삶에 주는 효과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 또는 관상용 식물과 나누는 친밀감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에 대해 평소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세상과의 친밀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 삶은 우리가 발견한 정신적인 진리 안에서 찢기거나 너덜거리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하나의 옷처럼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삶을 조각내고 구분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명상 수행으로 숭고한 진리를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에너지를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탁월한 사랑을 알고자 기대하는 것도 지각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편이 다른 측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진리는 깨어 있는 인생을 위한 바탕입니다. 온전하게 살 때 우리는 행동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쁜 행동을 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벽을 무너뜨리며 삶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기쁨은 열반에 이르는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감 높이려면
연민 갖고 진실하게 살라
나의 내적 세계 통찰할 때
모든 존재가 하나임 깨달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메따 수행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에게 메따를 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적인 삶을 영위하면 우리는 자신과 친밀해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해집니다. 자신의 내적 세계를 통찰할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과 이어지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한다는 이런 강한 바람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메따 수행은 아주 조직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메따의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은 이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감사와 존경을 느끼는 분들에게 옮겨 갑니다. 그다음은 친한 친구들에게 메따의 마음을 옮겨갑니다. 이런 범주에 있는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잘 맺은 뒤에는 메따를 보내기에 비교적 어려운 존재들에게로 차차 마음을 옮겨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사랑의 능력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 다음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감정이 드는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수행할 때 이 부분에서 때때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은 누군가를 즉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중립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거나 두려운 사람들에게로 메따의 마음을 향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소 극적으로 '적(enemy)'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적에게 메따를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수행은 아주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기 어렵거나 적과 같은 사람들은 사랑의 빛이 이를 수 있는 한계와 그 한계를 벗어난 무한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 선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펼쳐집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을 벗어난 사랑으로 꽃핀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거나 기대에 들어맞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좋고 싫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비추어 주는 태양처럼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에서 생겨나고 자유롭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메따 수행으로 얻는 것들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마음속으로 어떤 '의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특정한 느낌이나 의지를 꾸며 내어 억지로 실현시키는 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뒤로 물러나서,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씨를 뿌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며 그 일은 반드시 어떤 결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결실에 대해 붓다는 인상적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붓다는 우리 가슴속을 친밀함과 친절함으로 가득 채워 주는 자애의 힘이 열한 가지 독특한 이익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1. 쉽게 잠들 것이다.
2. 쉽게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3. 즐거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4.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5. 천신(天神)들과 동물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6. 천신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7. 외적인 위험(독극물 · 무기 · 불 등)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8.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다.
9. 마음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10. 죽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11. 행복한 세계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보통 메따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은 위의 열한 가지 이점을 자주 외우고 주기적으로 암송합니다. 의도와 노력이 가져다주는 저런 이점을 상기함으로써 우리는 풍요로운 믿음과 희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점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자애 수행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그런 이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볼 때, 메따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삶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되는지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메따 수행에 몰두하면 우리는 편히 잠들고 편히 깨어나며 즐거운 꿈을 꾸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해치지 않고 사랑스런 보살핌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도 없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도 없으며 항상 자신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서 생겨나는 느낌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스럽습니다. 남을 해치는 일은 죄책감, 긴장 그리고 혐오감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분노나 공포, 죄책감에서 벗어나 맑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깨어나는 일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메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와도 같습니다. 메따 수행으로 우리는 삶에 활기가 넘치고 다른 존재들과도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분열과 고독,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님 카롤리 바바(Neem Karoli Baba)라는 힌두교 스승은 다음과 같이 자주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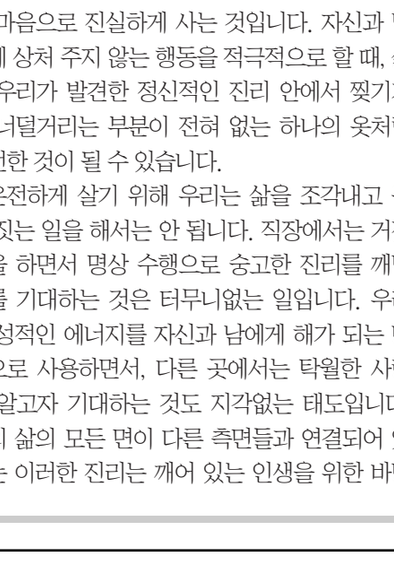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 밖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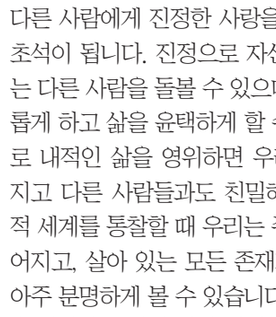
이 말대로 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모험을 하게 되고 그 모험 속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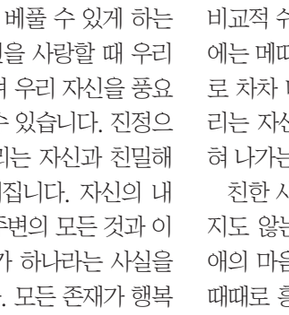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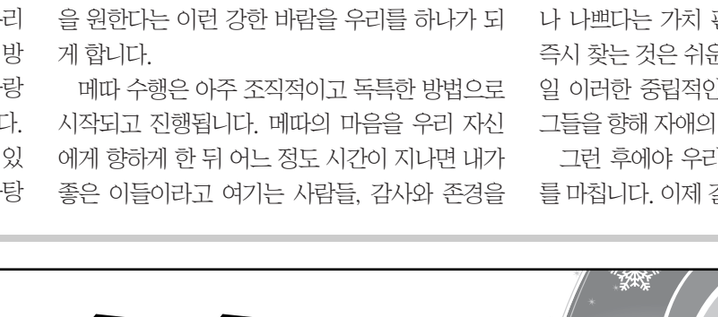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56호 현대불교
2017년 7월 19일(5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모든 거를 진짜로 믿고 맡기고 침착하게 지켜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 말 하면 또 엇갈려서 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그냥 끝을 마치고….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더위에 건강하시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지원 신도입니다. 제가 농사짓는 데는 해남입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논밭이 갈라지고 많은 생명들, 풀포기 하나라도 죽어 가는 걸 볼 때 저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스님의 높으신 도력으로 단비를 주십시오.

큰스님 (합장하시며) 아니, 혼자 기우제를 아주 잘 지내고 가시네요. 하하하….

질문자2(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한 6년 동안 방에만 들어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작년에 천도재를 올리고는 좀 좋아졌습니다. 제 손으로 밥도 해 먹고 씻고 그랬는데, 한 두 달 전부터 그냥 옷을 벗고 알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계성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타신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안에서, 의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관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세요. 마음의 선장한테 모든 걸 일임하세요. 자꾸자꾸 착을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탁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해 놓으려면 해 놓고 말려면 말고, 하여튼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일임하실 수 있다면, 착을 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난 거니까 마음에 의해서 고쳐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2(여) 안양에서 삽니다.

큰스님 네. 그러면 또 오십시오.

질문자3(남) 저는 91년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이십 며칠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같이. 그런데 제일 처음 초기에는 마귀 잡신들이 제 머릿속에서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마귀 잡신들도 가끔씩 나오고 성령분들도 나오고 계십니다. 어떤 치유 방법이 없는지 해서 제가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를 당신이 마귀라고 그런다면 당신도 마귀지?

질문자3(남) 저도 마귑니다.

큰스님 하하하…. 왜 마귀라고 생각을 하죠?

질문자3(남) 제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처음 잡신들 마귀들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여자 생각 나게 만들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저한테 충고할 거는 충고를 하고….

큰스님 그래서 지금 설법한 그 자체가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 그렇게 충동질치니까 그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게끔 마음의 선장한테 다 일임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자3(남)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성당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들이 나타나시고 이럽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게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 하나에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선장이야. 주처,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다 이 소립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로 당신의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바로 주님이에요.

질문자3(남) 하나님을 부정하십니까?

큰스님 허, 이런! 당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소? 당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지.

질문자3(남) 저 세상 통공해 보셨습니까?

큰스님 이런, 아이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어서 가요.

사회자 다음 질문 하실 분 나오세요.

큰스님 잘 일러 줘서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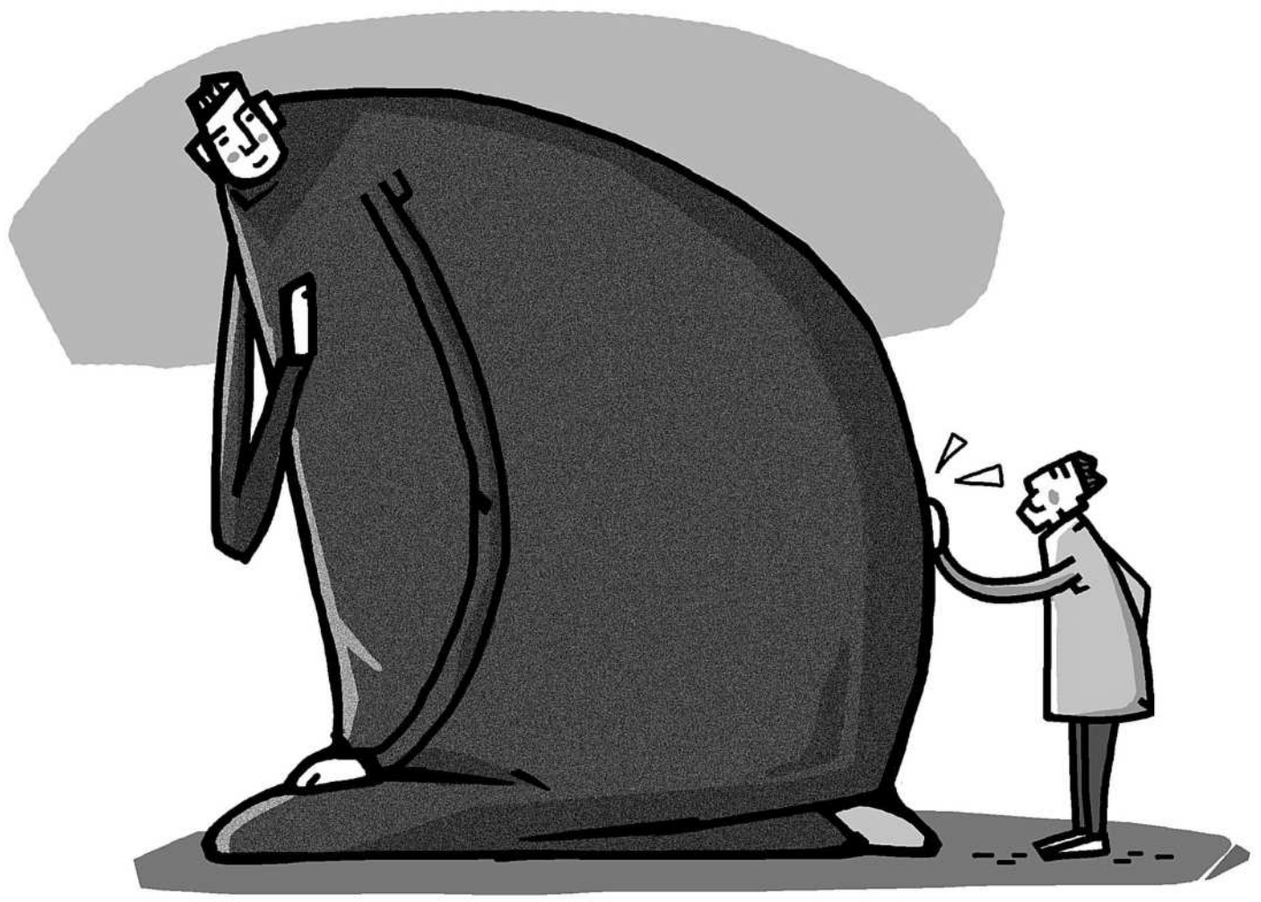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신도입니다.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보통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상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생각들이 너무 꾸역꾸역 나오는 바람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찾아보지만 그냥 입에서 그 이름만 맴돌 뿐 마음이 잘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게 되지만, 그게 분별심이라든가 저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질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임을 알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제가 놓는 작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죠. 각색 각종의 용도에 따라서 자꾸 나오는 모든 거를 마음의 선장 주인공에다가 다 일임하고 맡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꾸 굴리면, 안 되는 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되는 거를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기세요. 모든 거를 진짜로 믿고 맡기고 침착하게 지켜보세요. 이름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 없는 마음의 선장, 바로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질문자4(여) 알겠습니다.

질문자5(여)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첫아이가 지금 스물일곱인데요, 애기를 낳고 한 30일 지나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옷을 벗으니까 막 살갗이 아프고 뭐가 찌르는 것 같고 이렇데요. 그래서 놀라서 집에 왔는데 그 뒤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가슴이 아파 숨을 못 쉬고 열기가 확 올라오면서 말도 안 나오고 머리도 멍멍합니다. 살이 쪘으니까 남들은 꾀병이라고 하지만 오래도록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이럽니다.

큰스님 그 믿음이 있으면요…, 지원에 나가세요?

질문자5(여) 인제 나간 지 얼마 안 됩니다.

큰스님 나가시면서요, '선장, 너만이 그거를 다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5(여)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잠을 오래도록 못 자고 그러니까 머리가 멍멍해지

☞ A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진실로 감사한 줄 알고 진실로 믿을 줄 알고 살 줄 알아야

☞ A17면에서 계속

고 자려고 하면….

큰스님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면서 작용하는 그 선장한테 진짜로 맡기세요. 주인공 선장한테 꼭 진짜로 믿고 맡기세요.

질문자6(여) 저는요, 수술을 아홉 번씩 하고 그래서 몸을 지금 쓰지를 못해 가지고 불편합니다. 스님, 마음 좀 내 주십시오.

큰스님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시고 열심히 나와 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안됩니까? 자기한테다 맡기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죠. 열심히들 하셔서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질문자7(남)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중생입니다. 한 달 전쯤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목 밑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했습니다만 상처 부위가 쾌유되지 않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상처가 치유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마음 내 주십시오.

큰스님 알았습니다.

질문자7(남) 큰스님 가르침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네. 정진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 마음의 선장을 뿌리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바로 모든 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의 선장한테 다스림을 받아서 다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편안하게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8(남) 저는 대구에서 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전국 종합 병원 이곳저곳 여러 곳에 다녀 봐도 뚜렷한 병명도 없고, 한 2년 전부터 중심이 안 잡히고 걸음걸이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금은 노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큰스님, 원하옵건대 한마음 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마음 공부 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알겠습니다. 진실로 감사한 줄 알고 진실로 믿을 줄 알고 진실로 살 줄 안다면 꼭 고쳐질 겁니다.

질문자9(여) 스님, 참 뵙고 싶었습니다. 가정과 집안에 너무 부딪치는 일이 많아서 스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번 내 주십시오.

큰스님 (고개를 끄덕이시며) 예. 모든 걸 한 줌으로 쥐어 가지고 마음의 선장한테 '너 이걸 쥐여 줄 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팽개치세요. 거기다가 쥐여 주세요. 모든 걸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개수로 따지자면 자꾸자꾸 많아지니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거기다가, 마음의 선장한테 입력을 해 놓으면요, 그 입력된 대로 그냥 자꾸 나와요.

질문자10(여) 큰스님께서 고행을 많이 하셔서 여러 중생을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바깥양반이 천식으로다가 20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두 남매가 한마음선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 보자고 해서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서 단 10분도 앉지를 못하는 양반이라 두 시간을 거기 앉아서 배겨 낼까 걱정하고 왔는데, 그 두 시간 법문을 앉아서 다 듣고 그거를 다 이겨 냈어요. 그리고 큰스님께 절을 올리면서 "저는 숨이 가빠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하세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는 2년 동안 병원을 안 가고 약만 타다가 먹고 그걸 이겨 내고 살다가, 그렇게 몸도 좋아져서 올 정월 초닷샛날 떠났어요.

>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면서 작용하는
> 그 선장한테 진짜로 맡기세요.
> 주인공 선장한테 꼭 진짜로 믿고 맡기세요.

그렇게 숨이 가쁘고 애를 쓰던 양반이 갈 적에는 저녁을 다 차려서, 외국서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자식들이 다 왔는데, 부엌에 나와서 이게 뭐냐고 그래요.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기에 "애들 과자요." 하니까 "과자여?" 그러고는 그걸 보고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하고 앉더니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큰스님 가피력으로다가 갈 적에도 애를 안 쓰고 가고 그랬어도 참 저는 이렇게 갑자기 가서 너무나 당황하고 그 아픈 가슴을 어디다가 풀 길이 없었는데, 한마음선원에 와서 그 아픈 가슴이 삭아지는 겁니다. 저는 큰스님을 뵐 적마다 그렇게 고행을 하셔서 이렇게 만 중생을 살려 주시는 데 대해 그 감격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저의 을미생 딸이 여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큰스님 말씀이 본인한테 맡기라고 하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이렇게만 중생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옵나이다.

큰스님 뭐, 짝도 이제 생기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11(여) 스님, 반갑습니다. 한마음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친자매처럼 사랑하는 아우가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지금 소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구리에다가 호스를 끼워서 소변을 빼내고 양팔에는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음 공부를 해 보라고 책도 사 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음을 내서 같이 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힘이 좀 부족한지 빨리 회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스님께서 한마음 내 주시면 빨리 완쾌되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저는 병원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같아선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고장난 거를 안에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으로 믿음을 갖고 가야 할 텐데, 거죽으로 내 몸뚱이를 고치려고 방사선을 쐰다 하면 십분지 칠은, 즉 말하자면 방사선으로 인해서 콩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혈소판도 녹아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딴 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병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몸을 그냥 두고서 그 병을 정신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지요. 이왕 죽을 것,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두고 곱게 죽지 왜 그렇게 고생 고생을 하면서 죽어 가야 됩니까? 난 참,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안으로 믿음을 가져서 통신이 돼서 안의 생명체들이 작용을 해 주게 해야 그게 얼른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자궁암을 앓고 있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가끔 그러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우냐, 응? 네 몸뚱이에서 나온 거라면 네 몸뚱이에서 고쳐야지." 하면서 관하는 도리를 일러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어이구, 피가 멎고 뭐가 어떻고 또 괜찮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병원에 궁금해서 가 본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모두 그냥 살고, 그저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아까워서 그냥 야단입니까? 헌 옷 벗어 버리고 새 옷 입으면 더 좋지요. 허허허….

질문자11(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3, 6, 9라는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도리인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스님에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거는 숫자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공했고 삼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일심으로서, 그 육은 진짜로 믿고 그래야 그 과거삼 현재삼 미래삼, 구정토를 이룰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숫자 없는 숫자니까 그대로 모든 게 공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우리가 마음도 초월됐고 몸도 공했고, 모두가 이렇게 찰나찰나 지금 움죽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그러겠죠.

질문자12(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먼 데서 이야기를 듣고 모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안양 선원에 다니는 딸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큰스님을 한번 찾아뵈라 해서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사느라고 내 몸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살아나오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냥 한번 고쳐 보려고 뜸을 많이 떴습니다. 그래도 안되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모든 데가, 삭신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큰스님한테 아주 몸을 맡겨 볼까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 주십시오.

큰스님 이왕 맡기려면 그냥 담뿍 맡기세요, 그냥. 몸뚱이를 다 그냥 팽개치세요.

질문자12(여) 감사합니다.

질문자13(여) 스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스님을 뵙기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뵐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 얼굴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은 정말 옳은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무슨 잘못으로 인한 건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제일가는 명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고, 선생님들께서는 특수학교에 보내지 그러냐고 말씀들 하시고 그러거든요. 달리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안정을 못하고 고집대로 다 하고, 아무튼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정말 다른 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밥은 자기가 해서 떠먹어야지." 하는 그 말씀은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많이 낫습디다. 그러니까 댁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는 정신 공부, 즉 마음공부를 닦는 데 역점을 둔 거니까 하여튼 거기다 맡기고 그렇게 가면 쟤도 얌전해질 거예요.

질문자13(여) 스님,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14(남) 저는 서울 상계동에서 왔습니다. 우선 큰스님을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는 신도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한테서 천수경 책자를 받았는데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천수경 테이프도 하나 사 가지고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항상 불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 둘째 여아가 지금 열한 살인데 생후 6개월부터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태라 스님께서 한마음 내 주시면 앞으로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요, 빗물을 받으려 해도 그릇을 만들어야 빗물을 받죠? 그렇죠?

질문자14(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예,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저절로 그 그릇에 담길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그릇을 만드세요. 즉 절에 나오면서 관하는 법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애한테도 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질문자14(남)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 어머니 합창단과 청년회 합창단의 노래공양이 있겠습니다.

큰스님 그럼, 여러분! 여러분!

대중 예!

큰스님 하하하! 더우신데 우리 쾌활하게 서로 한바탕 웃고 헤어집시다.

대중 예! (대중 박수)

※ 위 법문은 1994년 7월 17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붓다 가르침대로 살면 '웰빙'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13개국 웰빙지수 조사 결과
한국 최하위, 작년보다 악화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 높아져

붓다 설한 〈행복경〉 살피면
웰빙 현대적 요인 찾기 가능

술 절제 · 善緣 · 가족 사랑 등이
스스로 웰빙할 수 있는 요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무한 웰빙 세상 누리게 될 것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 '웰빙 지수'가 1년 전 보다 낮아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13개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헬스서비스기업 시그나 그룹이 발표한 '시그나360°웰빙지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기, 인식,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연간지수로 주요 아시아 · 태평양 지역과 유럽국가 13개국 만 25세 이상 성인 1만4,000명(한국 1,005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도록 구조화 된 독립적인 연구조사이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된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의 웰빙 지수는 53.9점으로 세계 평균 6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상황, 직장 관련 건강 및 복지 등으로 구성된 설문항목 모든 부문에서 하락해 한국인들이 예년에 비해 더 팍팍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웰빙지수 향상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과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붓다는 웰빙 즉 행복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 38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비법을 담은 〈행복경〉 내용에는 웰빙의 현대적 요인 5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신체건강'의 비결에 대해 "술을 절제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 된다고 권하고 있다. 성인 인구 증가율 보다 주류 출고량이 더 가파르게 오른 한국의 현실을 꿰뚫어 본 듯하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하여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된다. 가족과의 심리적 관계 형성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인 '사회관계' 항목에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로 등장한다. 각종 사기 사건 등을 비롯하여 사회문제의 원인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인 '재정상황'에 관하여는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형편 따라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웰빙지수에 보면 한국은 특히 재정 분야에서 전 연령대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은퇴 후 재정지표(43.5점)에서도 조사국 중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집을 장만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이가 들수록 체면치레로 과한 지출을 권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하는 비결이 '알맞게 도우며'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인 '직장관련 건강 및 복지'에 대하여 붓다는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티끌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웰빙의 요인임을 간파한 말씀이다.

더불어 〈행복경〉에는 궁극적 웰빙인 최상의 행복, 출세간적 행복 즉 열반의 행복도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붓다의 지침대로 살다보면 세속적 웰빙 지수와 무관한 최상의 행복 세계인 열반의 세상이 지금 이 곳에서 펼쳐져 더 이상 지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무한 웰빙 세상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자칼럼
박아름 취재부 기자

사찰 축제에 '푸드트럭 주의보'

"절에서 스테이크 판다. 오늘 전부 고기차ㅋㅋ"
"절에서 고기를… 너무 잔인한 거 아냐?"

최근 경기 A사찰서 열린 축제가 SNS상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지만, 현장서 판매된 '푸드트럭'의 메뉴가 화근이 된 것. 당일 A사찰 축제에서는 스테이크 · 곱창 등 육류가 판매됐고, 축제가 끝난 후 일부 참가자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A사찰 주지 스님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육류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었다. 스님은 "사전에 푸드트럭 업체 측에 비빔밥 · 국수 등 사찰 환경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5대 푸드트럭 중 일부 육류 메뉴가 들어와 해당 푸드트럭만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5대 모두 빠지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육류도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경내가 아닌 주차장에 푸드트럭을 배치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육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후 관계를 따져보니 사찰 측의 난감한 입장도 이해가 됐다. 이전 축제에서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본 적 없었고, 당일 푸드트럭이 모두 철수할 경우 행사 진행이 원활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내였던 주차장이었던 사찰 행사에서 육류가 판매된 것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 산사의 청량함을 기대하며 A사찰을 찾았을 일반인에게도, 또 불살생(不殺生)을 미덕으로 알며 A사찰서 수행해왔을 불자들에게도 종교인이자 종교시설로서

A사찰 축제에 육류 푸드트럭 '물의'
푸드트럭 부를 시 품목확인 철저해야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한 사실은 변함없다.

불교에서는 오계(五戒)에 따라 육식을 삼가해왔다. 수행자 또한 죽임을 당한 동물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도 이롭지 않다고 하여 육식을 하지 않는다. 특히 불교는 생명존중사상을 주창하는 종교가 아니던가. 이 때문에 '대놓고' 육류를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썩 좋은 인상으로 남진 않는다.

먹을거리가 축제의 큰 재미요소인 만큼 요즘 푸드트럭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푸드트럭들만 모아 '먹방 축제'를 벌이는 일도 많다. 한 곳에서 여러 음식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고, 축제도 즐기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을 유치하려는 요즘 불교계 축제에도 푸드트럭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특히 꽃 · 풍등 · 세시풍속 축제 등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사찰 축제에서 더욱 인기가 좋다. 하지만 A사찰의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유치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과 다름없다. 여법하게 치러진 사찰 축제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이 수월하다고 했다. 사찰 축제에 푸드트럭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선례를 잘 남겨야 다시는 사찰에서 고기 냄새와 연기가 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 층 포교도, 일반인에 절 문턱을 낮추는 것도 다 좋지만 불교 본연의 가치를 잃어선 안 될 일이다.

社說

신임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에 부쳐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중 하나인 태고종이 새 수장으로 편백운 스님을 선출했다. 편백운 스님은 7월 13일 진행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143명의 선거인단 중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59표로 당선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태고종 내부에서는 종단 위기 상황에 대한 종도들의 우려가 높았다. 위기의 근원은 바로 부채 문제였다. 총무원장 선거 직전 직선제 도입 추진도 이런 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편백운 스님의 당선 일성이 부채문제 해결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태고종은 이밖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조계종과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 해결을 비롯해, 지난 종권들에서 비롯된 종단 내 갈등해소, 대외 위상 회복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태고종도들의 화합이 우선돼야 하며, 중심에서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것이다. 편백운 스님은 2위 후보와 3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또 다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스님이 직접 밝혔듯, 대사면과 능력 위주 인선 등의 조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사회에서는 아직도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행보를 걷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해 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 혼란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태고종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고종 편백운 호에 새로운 순풍이 불기를 기원한다.

금강대, 발전 위한 결단 내려야

천태종립 금강대에 내홍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 총장이 인사를 전횡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교직원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호소문은 물론 학교 곳곳에 총장 퇴진 현수막들이 걸렸다.

한때 금강대는 불교 종립대학 중 가장 주목받던 곳이었다.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년간의 대학평가서 금강대는 D+와 D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다. 이를 수습해야 할 책임자인 총장이 나서서 해당 직무와는 동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했다. 교직원 노조 측은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총장은 인사위원회 평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청권자이고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인사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를 추천을 통해 받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여기에 본지가 확인한 직원들을 향한 총장의 폭언들은 차마 지면에 게재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시정잡배나 쓸 법한 욕설과 막말은 대학 총장이 행했다는 게 개탄스럽기만 한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천태종단도 책임이 있다. 학교를 창립한 이상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 공부하고 교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감독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의회 차원에서 아직 사정청취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도 금강대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좋은인연 대출 안 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립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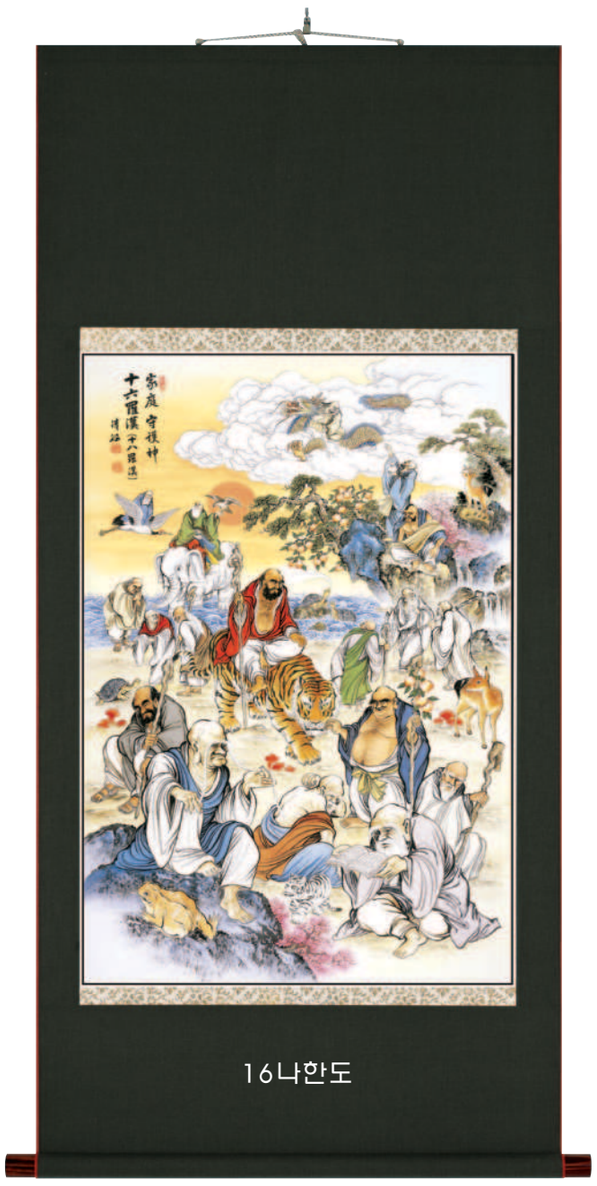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걸망대신 카메라 영상 전법 50년

산문 밖의 禪 선암 스님 (태고종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 作 '출가'

찰나라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가자에게 찰나의 시간이란 더 말할 것이 없이 절박하고 아까운 시간이다.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오랜 세월 치열하게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찰나의 시간을 쌓아온 이가 있다. 50여 년 동안 영산재와 승가의 모습, 연꽃 등 불가적 사진을 찍으며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어온 선암 스님(〈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회장)이다.

길이 된 사진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우리의 영산재(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리의 대표적인 불교의식이자 전통문화인 영산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과정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영산재를 촘촘히 볼 수 있게 해 준 사진기록물이 있었다. 선암 스님의 사진이었다. 춤추는 바라에서 천수경이 들려오고, 나비춤엔 삼보천룡을 모시는 진언이 들려온다. 그리고 법문과 대중의 정성에 영가는 극락에서 다시 태어난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생생하게 영산재를 재현하고 있다.

스님은 1972년부터 영산재를 꾸준히 카메라에 담아왔다. 영산재를 다룬 사진집과 책이 5권에 이른다. 그 사진들이 꾸준히 영산재를 홍보해 왔고 유네스코의 위원들 역시 그 사진을 통해 영산재를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스님의 영산재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묵묵히, 치열하게 걸어온 '길'이다. 단순히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일이 아니라 찰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드는 정진의 하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은 길이 되었고, 유네스코의 위원들은 그 길을 본 것이다. 사진이 아닌 '영산재'를 본 것이다.

"오랜 세월 영산재를 찍었어요. 세월이 된 사진들이 의미 있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스님은 영산재를 널리 알리고자 영산재를 일본 국립극장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일본 국립극장에 한국 공연이 오른 것은 영산재가 최초다.

스님은 영산재 외에도 승가의 면면을 작가와 출가자의 경계를 허물며 카메라에 담아왔다. 노을 속을 걷는 도반, 걸망엔 노을이 물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바는 가까운 듯 멀다. 천진불 동자승이 스승의 손을 잡고 봄길을 걷는다. 동자의 낙엽 같은 손이 발우를 받고,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고, 이른 아침 대중은 산길을 따라 삼보일배를 하고, 또 다른 대중은 안개속에서 낙엽을 쓴다. 선방으로 날아든 햇살과 그 햇살에 빛나는 장군죽비, 그리고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좌들. 천불천탑 앞에서 가부좌를 튼 이국의 납자들, 영산위에서 불보살을 그리고 있는 노장 등 2007년 출간한 스님의 일곱 번째 사진집 〈출가〉속엔 산문 구석구석의 대소사와 승가의 삶이 한 시절처럼 흘러간다. 그 중엔 대한민국 사진대전 우수상(1995)과 한국관광공사 사진공모전 대상(대통령상 · 2004)을 수상한 사진도 실려 있다.

선암 스님은 연꽃사진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1992년 서울 동방플라자에서 열렸던 〈연꽃 사진전〉은 당시 연꽃사진 열풍을 일으켰다. 많은 대중과 사진가들을 연밭으로 가게 했다.

뭉게구름 사이로 솟아오른 꽃송이, 푸른 연잎 사이로 피어난 꽃송이, 아침 이슬에 젖어 빛나는 꽃송이, 등불처럼 빛나는 순백과 분홍빛의 화장세계는 선암표 연꽃세계다. 전국곳곳의 연꽃사진을 담아오던 선암 스님은 봉원사 총무 시절 도량에 손수 연꽃을 심기 시작했다. 봉원사 연꽃밭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꾸며져 2003년 열린 제1회 서울연꽃축제를 바탕이 됐다. 연꽃축제는 계속 이어져 올해 8월 5일 제16회를 앞두고 있다.

B2면에 계속

영산재 사진으로 전법

공군 시절 사진과 인연
전역 후 카메라 독학
40년 넘게 영산재 촬영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헌

불가적 사진은 영상포교

영상포교 원력 세워 50년 수행
1992년 연꽃 사진 붐 일으켜
17회 개인전 17권의 사진집
〈월간 불교〉 교계 최초 사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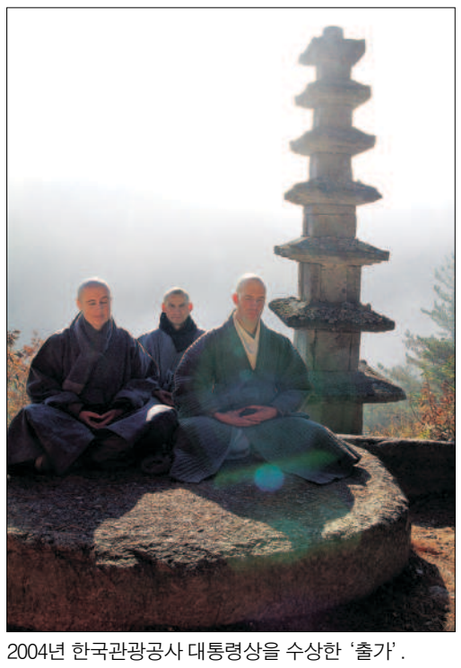
카메라를 든 스님의 모습이 마치 주장자를 든 선사의 모습과 닮아 보인다. 선암 스님은 찰나의 마음을 사진에 담기 위해 수십년간 정진해 왔다.

INSIDE

B4 출판 〈불화의 비밀〉 자연 스님 지음

B5 문화 조재익 작가 17번째 개인전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2004년 한국관광공사 대통령상을 수상한 '출가'.



선암 스님은 영산재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공헌했다. 사진은 스님의 작품 '영산재'.



스님의 '연꽃' 작품. 스님은 연꽃사진 붐을 일으켰다.

찰나의 마음, 사진 속에 담다

'선암 스님' B1면에서 계속

찰나에서 시작된 길…출가 그리고 사진

선암 스님의 작품 중에는 동자승이 많이 등장한다. 스님 역시 어린 시절에 머리를 깎았다. 사진 속의 동자승들은 아마도 또 다른 선암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스님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전사하면서 스님의 집안은 어려워졌다. 힘겨워진 모친은 당시 일곱 살이었던 스님과 함께 신촌 봉원사로 들어왔다. 스님의 절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 동자는 지금 그 절의 주지로 살고 있다. 스님은 1964년 서울 봉원사에서 운파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3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이 카메라를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다. 친구가 집에서 가져온 친구 부친의 카메라였다. 그때 스님은 '사진'이란 씨앗을 잉태했다. 언젠가 카메라를 메고 만행을 나서는 꿈을 꾼다. 그야말로 '꿈'이었다. 그리고 꿈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한다.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한다. 헌병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스님은 우연히 옆 사무실이었던 정훈감실에서 카메라를 처음 만지게 된다. 스님은 정훈감실 요청으로 신문기자들에게 제공할 사진을 한 두 장 씩 찍기 시작했고 그것이 스님을 사진의 길을 걷게 했다.

스님은 전역 후 바로 카메라를 구입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스님의 형편으로 볼 때, 카메라 구입은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의 길을 시작했다. 주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점점 사진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1972년 〈월간 불교〉 사진기자로 일하게 된다. 교계 최초의 사진기자다. 당시 스님의 사진 실력은 입문단계였지만 스님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잡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사진을 공부하지 못했던 스님으로선 사진기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 때부터 스님의 본격적인 독학이 시작된다. 서점을 뒤져서 책들을 사보기 시작했고 책에서 본 사진들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그 때 스님의 눈에 밟힌 사진들이 연꽃 사진들이었다. 일본 잡지에 실린 연꽃 사진들에 스님은 매료됐다. 스님의 연꽃 사진은 그렇게 시작됐다.

스님의 사진 공부는 나날이 달라졌다. 사진가라는 이름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불교계 행사엔 여지없이 스님이 있었다. 그리고 1979년 중앙일보가 주최한 사진공모전에서 입선하면서 사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다. 초파일 연등축제가 끝난 후 봉원사 대웅전 마당에 걸린 붉은 연등 아래로 노란색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다. 스님의 영상포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 후로도 스님은 1988년 일본 아사이신문이 주최한 제50회 국제사진공모전에서 입선하는 등 각종 공모전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다.

영상포교 50년, 수행 50년

"처음엔 단순히 사진이 좋아서 사진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상포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력으로 삼는다면 큰 불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스님이 사진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사진에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했을 때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길과 사진가로서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다. 단순히 카메라만 잡는다면 삭발염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승복을 입고 카메라를 잡는다면 남다른 명분과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영상포교, 곧 전법의 원력을 세우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결과적으로 불법홍포에 기여해왔지만 원력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에 한 차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곧 회향의 불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스님은 찰나의 시간 속에서 좀 더 치열하게 자신과 사바를 들여다보게 된다. 사진 한 장의 순간들은 그저 사진 한 장에 찍힌 한 순간이 아니라 출가자로서 걸어야 할 진일보의 순간이다.

승가의 길, 사진가의 길

승단 따가운 시선 · 편견에도
묵묵히 사진가의 길 걸어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서 영산재
"쉼 없이 한국불교 찍고 싶어"



선암 스님은…

1964년 서울 봉원사에서 운파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3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1년 태고종 종덕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신촌 봉원사 주지와 (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영산재〉 등 사진집과 저서 17권을 출간했으며, 17번의 사진전을 열었다. 1995년 한국사진대전 우수상을 비롯해 2004년 관광사진공모전 대상인 대통령상 등 10여회 수상했다.

허투루 내딛을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이다. 그렇게 쌓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수행의 길이 된다.

"출가자가 수행은 하지 않고 정신을 엉뚱한 일에 팔고 있으니…"

스님은 한 동안 스승으로부터 승단으로부터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일의 겉만 보면 그럴 만도 한 일이다. 하지만 스님은 카메라를 메고 산문의 안과 밖에서 치열하게 길을 찾았다.

"육신에 잿빛장삼을 걸치고 있다 보니 사진기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절집입니다. 몸담고 있는 봉원사에서 늘 접하는 절간 구석구석과 대소사의 모습들,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제 사진기에 들어왔습니다. 또 태고종단의 크고 작은 행사 역시 포교의 방편이라 여기며 기록으로 남기려 열심히 사진기를 들이댔습니다. 중이 수행은 않고 딴 짓만 한다는 소리를 뒤통수에 달고 다니며 사진에 몰두한 지도 벌써 50여 년입니다. 제법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수행의 만행이라고 생각하여 시작했고 포교의 한 방편으로 여겨 왔습니다."

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50년의 세월은 그렇게 전법이 되고 수행이 되었다.

사진가 선암 말고 출가자 선암 그리고 인간 선암

2015년 10월, 태국에서 영산재가 열렸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 전사한 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다. 2014년 11월, 신촌 봉원사 주지로 취임한 선암 스님은 대방 단청 등 도량불사를 마친 후 그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또 하나의 원력을 실천에 옮긴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을 찾아 고인이 된 참전용사들의 위령제를 여는 것이다. 그 시작이 태국이었다.

"제 부친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하셨고, 그것이 제가 출가자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전쟁은 가장 큰 기억 중의 하나죠. 영산재를 오랜 세월 찍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의 전사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스님이 50여 년 동안 걸어온 길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일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원력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이듬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를 찾아 역시 영산재를 열고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그에 앞서 스님은 국내에서도 위령제를 시작했다. 2015년 5월, 독도에서 호국영령, 전몰 군경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었다. 또한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영산대재를 함께 봉행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와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 선암)가 개최했다. 스님은 이어 2016년에는 백령도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영산재와 올해 4월에는 제주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에서 4.3사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선암 스님은 "4.3 제주항쟁은 7년간 한국전쟁 다음으로 양민학살이 많았던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의 상처로 남아있다. 이번 영산법회를 통해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희생된 선량한 영혼들을 위로해 극락왕생으로 인도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을 염원하기 위해 시연하는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올해 미국 참전용사를 위한 위령제를 계획 중이다. 스님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영산재를 여는 것은 출가자 선암의 마음이며 인간 선암의 마음일 것이다.

"사진을 보면 글을 한 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생각입니다. 우리 불교 포교의 많은 자료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선 선암 스님의 17번째 개인사진전(고희기념)이 열렸다. 영산재 사진들이 걸렸다. 소중한 한국불교의 기록이며 전헌(典憲)이다. 50년을 걸어 단단히 낸 선암의 길, 앞으로 그 길은 어디까지일까. 그의 어깨엔 여전히 카메라가 걸려있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35년 동안 매일 천 배, 인간 한계 극복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⑭ 화가 한경혜 씨 이야기



그림 · 박구원

감사를 깨우치는 절수행
뇌성마비 장애도 이겨내
목표 있는 삶은 강인 그 자체

시각장애를 극복한 절 수행

시원하고 조용한 법당에서 절을 하고 싶을 때 가끔 찾는 곳이 도선사 마애불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다 들어주고 계신 마애불 앞에 서면 온갖 번뇌로 출렁거리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데다가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절을 하게 된다. 얼마 전 그곳에 가서 1080배를 하다가 온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되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다. 방석이 정면으로 부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놓여있는 데다가 몸동작이 유난히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방석 옆에 긴 철제 지팡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았다. 다가가 방석을 바로 놓아주었더니 고맙다며 나를 쳐다보는데, 눈이 맑고 안정돼 보였다. 육십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조용히 절을 하는지,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5백배를 하고 나서 좀 쉴 겸해서 도선사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고 다시 올라와 남은 절을 그녀와 함께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비로소 그녀에 대한 사연을 들었다. 몇 년 전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다하고, 지금은 어렴풋이 사물의 형체만 보일 뿐이라고 한다. 본디 천주교인이었던 그녀가 대학에 다니면서 불교에 귀의한 아들이 '절을 하면 건강해진다' 는 말을 전해주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108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눈을 좀 낫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지금은 '이만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 이렇게 바뀌었고, 무엇보다 매일 300배를 하니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좋다고 했다.

"파주에 있는 집에서 도선사까지 오는 데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아직 이렇게 혼자 힘으로 다니며 절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다가도 절에 오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더운 날인데도 마주 잡았던 손이 차디찼던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지금 이대로의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도 체험 없이는 온전한 자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와 만나기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결막염으로 한 열흘 동안 앓았다. 비교적 눈 건강이 괜찮은 편이어서 과신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다. 한 쪽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데도, 곧 괜찮겠지 하고 노트북으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하루 1080배를 했더니 몸이 피로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 유난히 염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웠던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절수행을 하고 있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눈병이 발병한 날부터 온전히 낫기까지 정확히 3주 걸렸다. 절을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108배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역시 108배는 감사하는 마음 그 자리가 정토임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수행이 아닌가 싶다.

살고 싶으면 절하라

눈에 염증만 생겨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절수행이다. 그런데 35년 동안 하루도 거름 없이 1000배를 한 사람이 있다. 중견화가 한경혜 씨가 그 주인공이다.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108배 이야기를 쓰면서 절수행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젊은이로 그녀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30대로 짐작하고 있던 그녀의 나이가 어느덧 올해 마흔 셋이라고 한다. 뇌성마비 4급 장애의 불편한 몸으로 일곱 살 때부터 하루 천배를 시작해서 이십대 초반에 하루만 배 백일기도를 세 번이나 마친 그녀를, 십여 년 전쯤 인사동 한 화랑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녀의 개인전이 열리던 전시장에서였다. 이미 그녀가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터라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를 안고 말았는데, 그때 다가왔던 그 바람처럼 가벼운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웃고 있는 얼굴도, 걸음걸이도, 경쾌해 보였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얼굴도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명랑한 그녀를 보면서 수행의 위대한 힘을 느꼈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다. 그녀가 온 마음으로 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가 그 어려운 수행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모든 에너지가 그대로 자식에게 간다는 것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안다.

사지가 비틀려 따로 돌아가는 몸으로 매일 천 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 만 배 백일수행을 세 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곁에 강력한 선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녀의 어머니 자신이 만 배 백일기도를 통해 '죽어야 산다' 는 경험을 했기에 자식에게 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딸 곁에서 때로는 냉정하고 매몰차게,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어주며 절을 하게 한 그녀의 어머니를 전시장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몸이 불편한 자식한테 냉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많이 주는 사랑보다 절제된 사랑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대답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짧게 한 마디만 하고 돌아섰는데, 나는 자식 둘을 키우면서 그 말을 여러 번 떠올리곤 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을 남처럼 대하기란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정말이지 쉽지 않다. 독립된 인격체로, 더 나아가 이미 완성된 부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믿고 대하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부모들은 이를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녀의 어머니가 사람에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느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힘든 수행을 결코 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 어머니의 위대한 힘, 수행의 강력한 힘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절 수행 이야기를 담은 책 '오체투지' 를 여러 번 정독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온다. 이번에 그녀에 대한 글을 쓰려고 다시 한 번 읽었는데, 10년 이상 된 책인데도 지금 막 나온 책처럼 신선했다. 진솔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구구절절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절수행이 주는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비틀어지고 덜렁거리던 사지를 가지고 태어난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어 보고 싶었다. 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절을 택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녀는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첫돌이 지나면서 뇌성마비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을 하려면 온 얼굴 근육을 다 써야 한두 마디 하는 정도였다. 아주 조금씩 힘겹게 걷기도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는 될 즈음인 일곱 살 때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맞았다.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가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정밀 검사를 해보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의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어머니가 딸을 들쳐 업고 해인사 백련암에 계신 성철스님에게로 달려갔다.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절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며 교화를 하고 계실 때였다. 새털처럼 가벼운 아이를 업고 백련암으로 올라가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등에 업혀 있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서 이미 포기를 했으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함께 죽는 거다. 그런데 부처님께 실컷 절이나 해보고 죽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참회도 해보고,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는 기도를 해보자. 우리 딸, 할 수 있지?"

엄마를 놓칠세라 꼭 들러붙어 있던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3000배를 해야 스님을 만날 수 있다니 이래저래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무토막을 이어 만든 몸처럼 사지가 덜렁거리는 몸으로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으나 생존에 대한 본능 때문이었을까, 몸이 굳어져 가던 일곱 살짜리 어린 아이는 사흘에 걸쳐 3000배를 해냈다. 물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가 무너지듯 앉고는 머리를 땅에 박듯이 한 절이었다. 3000배를 하고 나자 물을 마셔도 토하지 않았고, 성철 스님이 건네준 바나나 한 개를 다 먹을 수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성철스님이 절을 마친 어린아이에게 명했다.

"오래 살고 싶으면 하루에 천배씩 하거라."

'살고 싶으면 절하라' , 이 절대적인 명령은 세월이 가도 녹슬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철큰스님의 특허와도 같은 금언이다.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린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스님의 말씀을 어기면 살아 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로부터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다. 어린 나이에 불편한 몸으로 절을 해야 하니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있는 동안과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절을 해야 했다. 친구들과 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에 가기 전 이백 배를 하고 방과 후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해놓고 절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절을 해서 밤 10시가 되면 천 배를 마치는 생활을 6년 동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절을 계속할수록 굳은 얼굴이 풀려가고 비틀어지고 흔들거리던 몸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고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 계속〉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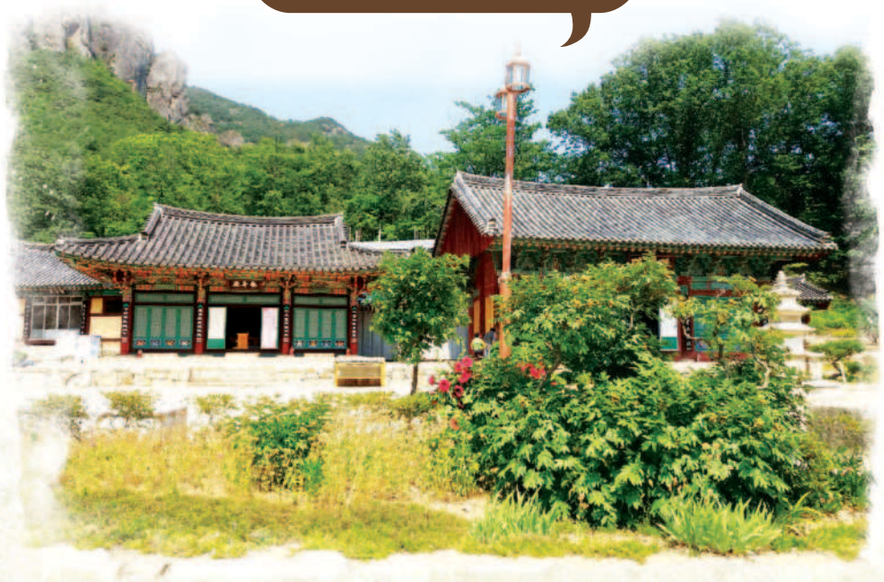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12~2017.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3	불교란무엇인가(초심자가 던지는 질문)	이중표	불광출판사
4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5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6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7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佛畵속에 담긴 스펙트럼 비밀 풀다

불화의 비밀

자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3만원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불화'만큼 중요한 성보가 또 있을까? 불교와 관련된 채색, 그리고 회화 작품을 아우르는 '불화'는 오랜 역사를 축적하며,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조성돼 왔다. 한국불화 초기 양식인 벽화, 경전에 삽입된 변상도, 사찰 곳곳에 걸린 존상화, 그리고 괘불도까지 불화의 미적 스펙트럼은 매우 다채롭다. 이 책은 그간 불교문화 관련 교양서를 출간하며 주목 받은 자현 스님의 '불교문화의 비밀', 그 세 번째 책이다. 앞서 출간된 〈사찰의 비밀〉〈스님의 비밀〉에 이은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불화(佛畵)'.

이 책의 출간은 한국불화를 단독으로 다룬 단행본이 많지 않은 시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출가 수행자이자 불교학, 동양철학, 역사, 미술을 전공한 저자가 그간의 지식을 십분 발휘해 불화를 역사, 문화, 종교의 다각적 측면으로 바라본 점은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불화의 역사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엔 '최초의 불화'가 언급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 할 수 있는 불화가 현존하지 않는 까닭에 관련 문헌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에 기대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불화에 관한 기록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 수록된 기원정사 관련 기록이다. 저자는 이를 '모두 믿을 수 없지만' 석가모니불 당시의 내용으로 소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초의 불화로 짐작되는 사원 장엄화(莊嚴畵)에 관해 이 문헌의 기록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후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전래되기까지 불화 양식의 변화 양상을 문화적 시각서 바라본다.



예천 용문사 〈팔상도〉〈수하 항마상도〉

한국불화 대표작 선정해 자세히 고찰

역사, 미술 등 저자의 전공 지식 발휘

"불화는 불교문화 알 수 있는 나침반"

삼국서 조선까지, 불화가 지닌 역사적 맥락

이 책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각 시기 불화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로써 종교적 표현 방식인 불화가 각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결국 우리는 불화가 지닌 종교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불화 관련 유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현존한 유물을 모아 소개하고, 옛 기록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초기불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 불교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당시 일본에 미친 우리 승려들의 예술적 영향은 어떠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국교는 불교였다. 그래서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이 피어난 시기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채색화 160여 점 중 10여 점만 국내에 보존돼 있고, 20여 점은 미국과 유럽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불화는 일본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고려 말 왜구의 침략 과정서 다수의 불화들이 약탈됐기 때문이다. 결국 고려 불교회화사는 '비운의 역사'나 다름없다. 고려불화는 당시 조성된 유물 가운데서도 명품이라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 적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저자는 고려불화의 특징과 양상을 분석한 기본 걸음서 더 나아가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아미타불과 관련된 그림이 많은 점을 들며 약탈의 역사를 되짚는다. 한편 당시의 위대한 예술혼이 담겨 있는 고려불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소 경직된 양식의 불화와 달리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러한 구도는 고려시대의 사고방식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조선시대

현존하는 대부분의 불화는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화라 하면 조선불화인 게 대부분이다. 조선불화의 특징은 경직된 구도와 여백 없이 꽉 들어찬 인물 구도에 있다. 이는 조선사회의 사상과 역사적 사건과도 깊은 연관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유교의 영향'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불화의 탄생을 가져 오는데, '감로도'와 '고승도' '조사도' 등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선불화를 시기별·주제별로 분류하고, 불화에 투영된 당시의 사상과 역사적 사건을 밝힌다. 특히 조선불화를 살펴봄에 있어 당시 사회상과 맞닿은 조선불화만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하고도 단순한 불화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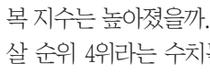
저자는 한국불화를 대표하는 아홉 개 카테고리 중 대표작을 선정해 불화 한 폭에 담긴 장면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불화가 지닌 비밀을 밝혀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다. 기존의 불화 관련 도서들은 한국 불교회화를 역사와 양식이라는 큰 시각서 바라보며 서술하거나, 감상의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불화의 비밀〉서 시도되는 분석은 불화 안에 담긴 대부분의 장면을 부분 부분 세심히 바라보는 데에 있다. 특히 불교의 교리나 경전을 통해 특정 표현의 근거를 찾는 한편, 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표현의 연원과 의미를 저 멀리 인도서부터 중국,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통사(通史)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 책서 나타난 한국 불교회화사는 고대 인도인들의 사고방식, 인도와 중국의 신화와 엮이기도 하고, 도교·유교의 사상 등과도 연결된다. 이로써 독자는 한국 불화사와 표현 양식의 면면을 깊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들 외에도 불화와 각 불화의 부분도를 포함해 350여 컷의 도판이 수록돼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불화 도판을 수록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사찰과 박물관에 흩어진 불화를 보여준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 시기의 대표적인 불화와 참고할 만한 유물의 도판을 다수 수록한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지면 위의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面相' 보단 '心相' …갈고 닦은 마음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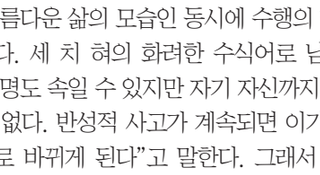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은 '읽을 만한 작가의 글'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글은 세월이 흘러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가 바로 그런 책이다. 구성과 소제목을 정리하고 이우일 작가의 그림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번 책에서도 원철 스님〈사진〉의 글은 여전히 우리를 솔깃하게 한다. 수행자에게 삶은 구도의 대상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보다 고심하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이다. 원철 스님의 글은 치열한 자기성찰서 길어 올린 글이다. 후기에서 스님은 "마른 뼈다귀를 씹는 마음으로, 마른 수건을 짜듯 한줄 두 줄 써내려갔다"고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삶이란 날로 비우고 버리는 것이지만, 글쓰기는 날로 더하고 쌓아가는 것, 이러한 극과 극의 '비우기와 더하기' 사이에서 스님은 타협하고 갈등하며 꼭 담을 것만 글로 옮겼다. 아름다움, 비움, 지혜, 마음, 수행, 땀, 부,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들. 절제된 표현, 적절한 인용, 촌철살인 문장 등 담백한 문장 속에 녹아 있는 삶의 화두는 '지금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도록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만큼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높아졌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순위 4위라는 수치는 절망적이다.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꿈꾸는 것들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옳은가. 이런 의심에 대해 이 책은 답한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보라는 것. 어쩌면 극단의 사고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극단의 사고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의심 없는 믿음이다. 의심은 곧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곧 중도中道이다. 중도는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다. '가운데도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처럼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들을 의심하고 점검하며 나아가려는 자세가 바로 중도이다. 가령 휴가는 반드시 산이나 바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서 나는 불행해지고 만다. 산이건 바다이건 방



구석에서건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은 중도적 지혜를 발휘하는 셈이 된다. 또 생일을 축하받아야 할 날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나는 가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본문 중에 생일에 대한 이런 글이 있다. "태어남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의 궤적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일을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다짐을 세우는 날이라고 기억한다면, 누군가의 축하 인사 정도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중도의 지혜가 그득하다. 고정된 것을 의심하고 변화하려는 것이야말로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중도의 삶은 머물지 않고 새로워지는 데 있다. 인생의 의미 또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있다. 날마다 좋아지는 삶은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뤄진다. 스님은 "자기반성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동시에 수행의 한 방편이다. 세 치 혀의 화려한 수식어로 남이야 수백 명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다. 반성적 사고가 계속되면 이기심이 지혜로 바뀌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날마다 참회문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 백팔배를 한다. 욕심을 차단하기 위해 다락방을 막아버리기도(물건을 쌓아두게 되므로) 한다. 이러한 반성적 습관은 곧 삶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 성찰의 시간은 어디에 누적되는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담긴다. '면상(面相)'보다는 '심상(心相)'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이들의 얼굴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다. 인생을 살면서 변해가는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순간순간 인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뜰을 비우고 가꾸고 길들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아름다운 얼굴 하나 떠오른다. 결국 수행과 삶은 같은 말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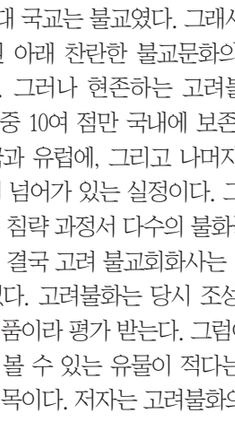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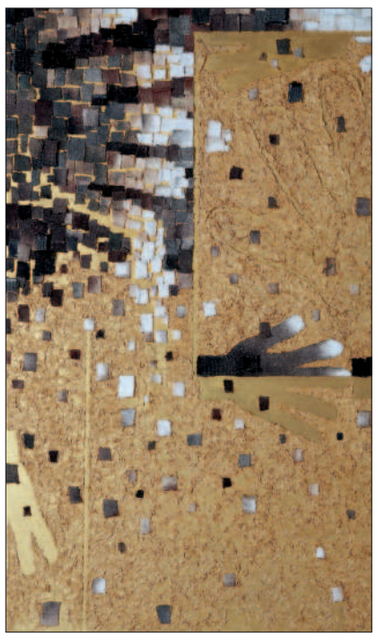
시방삼세 불국토 '예술 법석'으로 장엄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
불교미술작가 12명 초대전

8월 18일까지 청담 갤러리 '민'
過·現·未 불교미술 한 자리
정경연·신진환 등 12명 참여
각 4~5점씩 개인작품 선보여
"다양한 양식 불교미술 알릴 것"



아트플랫폼 주인공의 특별전 '삼세불'서 첫 번째 테마 '미래불'에 나서는 왕지원 작가의 작품 'Mechanical Buddhahood L-urethane'.



정경연 作, '하모니 08-89', 91.0x72.7cm _30F, Mixed Media&Technique on Canvas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순간, 시방삼세(十方三世)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 각각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과 현상으로 나투시는가. 이러한 문화적 상상력에 따라 부처님과 그 가르침의 모습을 예술로 승화한 불모들의 전시가 찾아온다. 과거·현재·미래의 불교 미술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예술 법석이다.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삼세불전(三世佛展)'을 8월 18일까지 서울 청담동 갤러리 민에서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전통성을 올곧게 살려 미래 불교미술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전시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부처님이 시방삼세에 계신다'는 말은 시간 및 공간적 경계의 공(空)함을 일깨워준다. 중생의 업이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이어진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의미에 착안해 불교미술의 과거·현재·미래를 '전통' '퓨전' '모던'으로 나눠 부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12명의 불교미술 작가가 참여, 현대미술부터 불교미술·조각·단청·진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7월 10~22일 열리는 '미래불' 테마전에는 정경연·신진환·박일선·왕지원 작가가 참여한다. '장갑작가'로 유명한 정경연 작가(홍익대 미술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도 역시 '장갑'을 오브제로 '하모니'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신진환 작가는 지난해 11월 개인전서 선보인 '미륵부처님 오시다' 등 약 4점을 전시한다. 박일선 작가는 '1025 독도 Dokdo of Korea' 등 단청산수화 작품을, 왕지원 작가는 'Mechanical Buddhahood L-urethane' 등 조소 작품을 소개한다.

이밖에 △명진 스님·박명귀·김지원·서칠교('현재불' 8월 1~9일) △호종현·김석곤·이문희·주성진 작가('과거불' 8월 1~9일)가 참여한다.

이경민 아트플랫폼 주인공 실장은 "과거에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불사 위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따라 불교적인 테마를 소화하는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다"면서 "다채로운 양식의 불교 미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문화포교를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여러 사람이 이로운 일을 함께 진행하는 '열린 예술 모임'이다.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가치와 정신성을 확립하고, 이후 온라인플랫폼 및 산사미술제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했다. (070)4693-4686 박아름 기자

붓다의 마음으로 '깨달음'이란 꽃이 피길…

조재익 작가 17번째 개인전
'옛길-꽃이 피다 2017'



붓다들-꽃이 피다, 162X372.6cm oil on canvas 2017.

석굴암 불상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불두가 흩날리는 꽃잎처럼 주위를 장식한다. 세상 모두가 평화롭기를,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다라의 불두들과 수행승들의 모습을 한데 모았다. 조재익 작가의 작품 '붓다들-꽃이 피다'이다.

조재익 작가는 7월 19~2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17번째 개인전 '옛길-꽃이 피다 2017'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붓다들-꽃이 피다'를 비롯해 '붓다-꽃이 피다' 시리즈 및 '옛길-꽃이 피다' 시리즈가 한꺼번에 공개된다.

조 작가는 "소장하거나 채집했던 붓다 이미지에 매화, 목련, 장미 등을 그려 존재가 피어나는 순간을 표현했다. 너, 나, 우리, 이웃 등 모두가 붓다 아니겠는가"라면서 "모든 깨어난 이들이 발견하고 걸었던 옛길에 지금, 당신(관람객)의 꽃이 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재익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현재까지 17회 개인전 및 70여회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MBC미술대전 특선(1회) 및 입선(3회)·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1회) 및 입선(5회)·동아미술제 특선(1회) 및 입선(2회)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유한다. (02)734-755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백제 왕흥사, 정유년에 다시 만나다

10월 9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서 특별전
사리기·대형 치미 등 9,800여점 공개

577년 정유년 건립된 백제 왕흥사. 이곳서 출토된 유물 9,800여점이 1440년이 지난 2017 정유년에 우리 후손들 곁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군·국립부여박물관은 특별전 '백제 왕흥사, 정유년에 창왕을 다시 만나다'를 7월 18일~10월 9일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자리한 백제 왕흥사는 577년 정유년에 건립된 사찰로, 일제강점기에 왕흥(王興)명 기와가 수습되면서 왕흥사터로 밝혀졌다. 2001년 사적 제427호로 지정됐다. 이번 전시는 왕흥사지 창건 144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특별전으로,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왕흥사지 사리기(사리를 담는 그릇)를 포함해 9,800여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발굴 당시 숨겨진 이야기와 유물 복원작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된다.

세부적으로는 △1부 '위덕왕, 왕흥사를 세우다'(왕흥사 소개, 특수·명문기와, 왕흥사지 가마터 등) △2부 '위덕왕, 사리기에 마음을 새기다'(사리기 및 사리장엄구 등) △3부 '왕흥사, 고려시대로 이어지다'(왕흥사 운영 과정) △4부 '왕흥사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왕흥사지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 사리기 및 치미의 복원 연구 과정)로 구성 및 전시된다.

특히 전시 유물 중 사리기와 대형 치미가 주목된다.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은 2007년 발굴된 것으로, 청동으로 만든 원통모양 상자 속에 작은 은제 항아리를 담고 그 안에 다시 금제 병을 넣어 삼중으로 사리를 봉안한 유물이다. 가장 바깥의 청동 상자 표면에는 창건연대와 목적 등을 기록한 29자가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위덕왕(창왕, 재위 554~598)이 죽은 아들을 위해 577년에 왕흥사를 건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형 치미는 높이 123m로,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치미로 알려진다. 마름모꼴의 꽃장식인 연화문, 구름문, 초화문 등의 화려한 문양과 하늘로 날카롭게 솟은 꼬리 부분이 마치 새가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단순한 지붕장식에도 화려함와 위엄을 갖춰 백제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파손된 채 수습된 118개 조각을 보존 처리하고 3차원 입체 영상(3D) 기술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복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 영상과 사진 자료가 함께 공개된다.

200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왕흥사터를 발굴 조사하고 있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이 왕흥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치미로 알려진 백제 왕흥사 대형 치미.



2007년 발굴된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석불 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고찰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⑬ 조루리지와 간센지

교토와 나라 경계쯤에 석불 마을로 알려져 있으면서 산책로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도노(土尾)라는 지역이 있다. JR이나 긴테쓰 나라역에서 버스를 타고 20~30분 정도 가면 되는 곳이다. 그 마을이 나지막하고 가파르지 않은 산 속에 있어서인지 그곳에 가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이번에는 도노를 대표하는 조루리지(浄瑠璃寺)와 간센지(岩船寺)를 소개하고자 한다. 옛날부터 나라 불교의 성지였던 도노는 교토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큰 사찰의 스님들이 도시를 떠나와서 수행정진을 했던 곳이다. 사찰 주소는 교토부이지만 역사적으로 나라(奈良)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나라에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나라 가이드북에 자주 나온다.



조루리지 삼중탑에서 바라본 구체아미타당. 국보로 지정돼 있다. 내부에는 아미타여래 9구가 조성돼 있다.



조루리지-간센지 사이 산책길서 만날 수 있는 마애삼존불. 도노 지역은 석불 마을이라고 불린다.

나라 불교 성지였던 도노 지역
대표하는 고찰 조루리지 · 간센지
두 사찰 산책길서 大佛 친견해
100~200엔 야채 무인 판매도

조루리지(浄瑠璃寺)

조루리지 창건에 대해서는 도래계 출신인 교키(行基)스님에 의해 8세기에 창건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하지만 사찰 연대표에는 1047년에 기묘쇼닌(義明上人)에 의하여 본당이 건립된 것을 사찰역사의 시작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당 내에는 본존으로 약사여래가 안치되어 있다. 조루리지(浄瑠璃寺)라는 사찰 이름이 동방에 있는 약사여래의 정토인 정유리세계에서 유래된다.

1107년에 본당을 해체하고 새로 서당(西堂)이라는 건물을 짓고 약사여래를 옮겼다. 또 새 본당(九体阿彌陀堂)이 세워졌고 다음 해 개안식(開眼式)이 봉행되었다.

조루리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고후쿠지 스님인 에신이었다. 에신이 1150년 조루리지에 들어와 경내를 정비했다.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새로운 가람 배치를 정했다. 에신이 고후쿠지로 돌아간 후에도 경내 정비가 계속 진행되었고 1178년엔 교토에서 삼중탑을 조루리지로 옮겨왔다. 본존 약사여래가 삼중탑으로 이운 안치되었다. 연못을 중심으로 동쪽에 삼중탑, 서쪽에 아미타당(본당)이라는 현재의 가람 배치는 에신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루리지 가람 배치는 헤이안시대 후반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정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해가 뜨는 동방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과거세에서 현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삼중탑 초층에 계시는 약사여래이다. 현세에서 어떻게 살면 될지를 가르쳐주고 번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석가모니불이다. 삼중탑 초층 문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을 그린 그림이 있다. 약사여래와 석가모니불이 계시는 삼중탑은 과거세인 동시에 현세이기도 한다. 해가 지는 서방에는 내세인 서방정토가 있고 아미타여래가 계신다. 아미타여래 덕분에 사람들이 구세를 받고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조루리지 좁은 공간에는 이렇게 전세, 현세, 내세가 다 표현되어 있다. 조루리지 경내에 들어가면 왠지 편한 느낌이 든다. 아마도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눈과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헤이안시대에는 불교의 역사관 중의 하나인 정법시 · 상법시 · 말법시란 3시 중 마지막 말법 시대가 1052년에 시작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당시에는 화재, 지진, 홍수, 기근, 역병 등 재앙이 잇달아 일어났다. 유명한 뵤도인(平等院) 아미타여래가 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깜깜하고 희망이 없는 현세에서 벗어나 좋은 내세가 올 것을 기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고 신앙의 대상인 아미타불이 많이 만들어졌다. 12세기 초 조루리지에서도 아미타여래가 제작되었다. 조루리지 아미타여래는 내영인(来迎印)을 하고 있는 중존(中尊)을 중심으로 정인(定印)을 하고 있는 좌우 8구가 있어서 구체아미타여래좌상이라고 불린다. 건물은 비좁지만 당당한 체구에서 박력이 뿜어져 나오고 법당 안에 엄숙한 느낌이 가득하다. 좌우 8구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씩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구체아미타여래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극락세계 아홉 가지 계층인 구품왕생(九品往生)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다. 구체아미타당(본당), 구체아미타여래좌상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구체아미타여래좌상이 아미타신앙이 유행했을 때 많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아미타당에 구체아미타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는 곳은 조루리지 뿐이다. 정말 귀중하다. 지금은 아미타여래 9구 모두 예경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2구씩 나라국립박물관에 옮겨서 앞으로 5년간 보존처리할 예정이다.

조루리지가 소장하는 불상 가운데 중생에게 복덕을 주는 길상천(吉祥天)이 인기가 있다. 비불로 평소에는 아미타여래 중존 오른쪽에 있는 감실에 문을 닫아 모셔놓고 있지만 1월1일~1월15일, 3월21일~5월20일, 10월1일~11월30일에 특별 공개로 감실의 문이 열린다. 화려한 채색, 아름다운 모습. 어둡고 엄숙한 아미타당이 길상천 공개 기간에는 밝아진다. 또, 삼중탑 초층에 봉안된 약사여래는 매달 8일, 1월1일~1월3일 등의 기간에 날씨가 좋을 때만 공개를 한다.

고후쿠지의 말사였던 조루리지는 19세기 후반 폐불훼석 때 나라 사이다이지(西大寺)의 말사가 되었다. 올해 도쿄에서 시작한 '나라 사이다이지전'이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오사카 아베노하루카스(あべのハルカス)미술관에서 열리는데 조루리지 길상천이 7월 29일에서 8월 6일까지 전시된다.



간센지에 핀 수국. 너머로 삼층탑이 보인다.

간센지(岩船寺)

조루리지에서 고요하고 쓸쓸한 산책길을 30~40분 정도 걸으면 간센지에 도착한다. 산속에 있는 이 아담한 사찰은 꽃 사찰로 알려져 있고, 특히 초여름에 꽃피우는 다양한 색채의 수국이 유명하다. 가을 단풍도 아름다워 도시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사전(寺傳)에 의하면 729년에 쇼무(聖武)천황의 발원으로 교키 스님이 아미타당을 건립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가(嵯峨)천황의 명으로 구카이(空海)의 조카이고 제자인 지센(智泉) 스님이 황자 탄생을 기원했더니 효험이 있었다. 그 덕분에 813년 당탑이 세워져 가람이 정비되었고, 사찰 이름이 간센지가 되었다. 사찰이 번성했을 때 당탑이 39개에 달했고, 그 위용을 자랑했으나 13세기에 병화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15세기에 삼중탑이 재건되었고, 에도시대에 들어와 도쿠가와(徳川)가의 기진(寄進)으로 본당, 본존을 수리, 복원했다.

20세기 후반에 재건된 본당에는 본존 아미타여래좌상과 사천왕입상 등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높이 약 3m, 느티나무 한 그루로 만들어져 중량감이 있는 아미타여래좌상은 양손으로 정인을 하고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불상제작 시기는 복장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46년이라고 한다. 원만한 윤곽에 온화한 표정, 당당하고 두꺼운 몸체 등이 특징이며 10세기 중기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간센지 일대에는 질이 좋은 화강암이 많아 간센지 경내에서도 석탑이나 석불 등 돌로 만든 것이 곳곳에 있다.

조루리지와 마찬가지로 간센지도 고후쿠지의 말사였으나 19세기 후반에 사이다이지의 말사가 되었다. '나라 사이다이지전'에서는 헤이안시대에 귀족 여성들의 신앙을 받던 간센지 보현보살기상상(普賢菩薩騎象像)이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시된다.

조루리지와 간센지 답사 안내

조루리지, 간센지가 있는 도노 지역은 화강암이 풍부하고 가마쿠라시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석불이 많아 일본 '아름다운 역사적 풍토 100선(選)'의 하나로 뽑히고 석불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는 산책로가 사랑을 받고 있다. 조루리지에서 간센지로 이어진 산책로가 좀 쓸쓸하지만 사찰 답사뿐만 아니라 석불도 즐길 수 있어 이 길을 걷는 것을 추천한다. 조루리지와 간센지 간 1시간 1번에 운행하는 버스도 있어서 편도로 이용하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다. 산책로에 있는 석불 가운데 특히 마애아미타삼존상(磨崖阿彌陀三尊像)이 유명하다. 마애불 위에 있는 돌이 닫집처럼 지붕 역할을 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 입가에 미소를 띄는 것처럼 보여 '와라이보토케(笑い佛)'란 애칭으로 알려져 있다. 명문으로 석수가 도다이지 재건 때 활약한 송나라 출신 석수의 자손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석불 종류는 미륵보살, 아미타불, 부동명왕, 지장보살, 관음보살 등이 있으나 아미타불이 가장 많다.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모셔놓은 조루리지나 간센지가 있는 도노에는 아미타신앙이 뿌리를 박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불이 높이 약 2.6미터인 다이몬마애불(大門磨崖佛)이다. 조루리지와 간센지를 잇는 산책길 도중에서 서쪽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대일여래로 여기고 있지만 아미타불 혹은 미륵보살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작 시기도 나라시대, 헤이안시대라는 설로 나뉘고 있다.

석불 산책로를 걸으면 야채 무인 판매소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무인 판매소는 일본에서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어 드문 것이 아니지만 도노의 무인 판매소는 물건을 그냥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달아매고 팔고 있어 보기에도 즐겁고 예술적인 느낌까지 든다. 많은 것이 100엔이나 200엔짜리다. 여기의 특산물인 차도 봉투에 넣고 판매한다. 산속의 아담한 사찰이나 석불을 지켜본 도노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매달린 야채를 통해서 느낀다.

식당이 조루리지 주변에 몇 개 있고 번화가에 있는 식당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즐기면서 먹는 것도 괜찮다. 다만 도노를 찾아오는 사람이 적을 땐 문을 닫는 식당도 있다.

도노에 갈 때는 JR 혹은 긴테쓰 나라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하루에 6번 밖에 없어 조심해야 한다. 또 JR가모역에는 하루에 8번 버스가 있어 가모역에서 갈수도 있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집으로 가는 길

하루가 저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길이다. 길이 나의 하루를 물을 것이며, 나는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물으면 무어라 답할까. 모두 다 말할 수 있는가.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죄와 벌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는가.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려운 길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⑭ 부인 따라 비구가 된 왕

도를 이룬 부처님이 가장 높습니다

몇 겁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난한 어머니가 예쁜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얻어 오는 밥으로 살고 있었지만, 딸은 당시의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한 마리 까마귀를 보고 활을 쏘았는데, 까마귀는 화살을 달고, 가난한 어머니의 오막살이로 날아갔습니다. 왕의 시종이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 까마귀와 화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기침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요?"

아가씨의 말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까마귀 몸에서 화살을 빼고, 약을 발라서 날려 보냈습니다. 화살은 오막살이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때에 언뜻, 아가씨의 고운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시종은 돌아가서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까마귀는 소리치던 아가씨가 살려서 날려 보냈습니다. 문밖으로 던진 화살은 여기에 주워 왔습니다."

시종은 안에서 말하는 아가씨의 말이 경우에 어긋남이 없고, 목소리가 분명했으며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손가락이 아주 곱더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왕은 마땅한 부인을 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 말을 듣고 가난한 집 아가씨를 왕비로 맞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으로 사자를 보내 아가씨를 불러 오도록 했습니다.

"대왕께서 나를 불러 종을 삼겠다면 내 집은 국법을 어긴 일이 없으니 안 될 일이요. 나를 청해다가 왕비를 삼겠다면, 사자로 온 당신부터 틀렸소. 무엄하게 왕비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왕비를 위협하다니!"

아가씨가 거절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자의 보고를 들은 왕은 이번에는 예를 갖추어 가난한 집으로 사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관 속 여럿을 거느린 사자를 잘 꾸민 수레에 태웠습니다. 궁녀들을 골라 한 수레에 태웠습니다. 뽑은 군사들을 행렬의 앞에 세웠습니다. 예물로 전할 소와 양, 여러 마리와 잔치 음식을 실은 수레와, 아가씨를 태우고 올 수레와 말을, 사자의 수레 뒤에 따르게 했습니다. 행렬이 지나는 길가에는 구경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도착한 사자는 예를 갖추어 아가씨에게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아가씨도 예를 갖추어 사신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가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외롭고, 가난하고, 비천한 집 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저의 집은 누추하고, 저는 덕스러운 여자가 못 됩니다. 모습은 복숭아꽃이나 우담바라에 겨눌 수 없으며, 음성에도 아름다움이 스며있지 않습니다. 앞을 보는 식견이 부족하며, 예절에 밝지 못하고, 어질지 못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림 · 강병호

이것은 아가씨가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신하들과, 궁녀들, 군인들 느낌에는 아가씨의 모습이 복숭아꽃이나 우담바라 꽃과 같이 예쁘고, 목소리에는 악기의 음성이 울리고 있으며, 밝은 지혜가 가득한 덕스러운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사자를 따라온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차려 푸짐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신을 모시고 온 신하와 궁녀들, 군인들 을 따로 모아서 자기가 공부한 바를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모습에서 향기가 흘렀습니다. 신하와 궁녀들, 군인들 모두가 훌륭한 나라의 어머니를 얻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자와 신하들이 궁전의 예를 좇아서 황금덩이, 백은덩이, 수정과 유리와 산호와 호박, 영락과 비단이 수놓인 옷을 왕비로 간택된 아가씨에게 올렸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왕이 보낸 옷으로 몸을 꾸민 아가씨가 왕의 말이 이끄는 왕의 수레에 탔습니다.

길이 절로 열리며, 말은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길 양쪽에 상서로운 코끼리 떼가 와서 같이 행진하며, 기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왕비의 행차가 왕궁에 이르자, 대궐 정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궁궐에서 5백 줄기 광명이 뻗치면서 대궐을 밝혔습니다. 아가씨가 왕 앞에서 100배를 올렸습니다. 이 의식으로 아가씨는 왕의 제1부인인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는 궁녀들과 궁내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느라 이레 동안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이 평등하다. 그 중에는 도를 이룬 분이 으뜸"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으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레를 기다리던 왕이 신하를 시켜 왕비에게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곤전(坤殿, 왕비의 처소)은 부부로서의 정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오?"

왕비가 회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하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이룬 부처님보다 높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를 마저 이루기 위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장을 보낸 왕비는 이튿날 아침, 왕궁을 버리고 당시의 부처님 제자가 되어 비구니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궁녀들과 궁중 사람이 수두룩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긴 그 길이 제일 바르고 좋은 길이지."

크게 깨달은 왕도 왕자에게 나라 일을 맡긴 다음, 부처님께 가서 계를 받고 비구 스님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을 돌이키며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때의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며, 왕비는 밀행제일 라후라 존자의 어머니 야수다라 공주였대요. 〈경률이상(經律異相)23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수련회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과거를 녹이는 것도
현재의 내 생각이요.
미래를 가져오는 것도
현재의 내 생각이다.

대행 큰스님 법어











만법의 생산처인 자기 근본에 의지하여, 가족들에게는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는 좋고 나쁜 양면을 벗어나서, 삼세가 공한 도리를 터득하는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 수련회를
2017년 7월 8일 ~ 9일 현대종합연수원 블룸비스타에서 원만회향 하였습니다.

수련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회원 일동